

연구총서 2002-13

•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 병 로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식량난 이후 북한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로 종교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졌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볼 만한 현상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한 가혹한 처벌과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내 종교활동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달라진 북한의 종교정책과 식량난 이후 변화된 북한의 종교 지형을 살펴보고 북한의 종교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과정

냉전기 북한의 종교정책은 ① 종교의 배척(해방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② 종교의 억압과 반종교선전(한국전쟁부터 1972년까지), ③ 제도종교의 허용(1972년부터 1988년까지), ④ 공식종교의 인정(1988년 이후) 등의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150만명의 천도교, 37만5천명의 불교, 20만명의 개신교, 5만7천명의 천주교 등 종교인구는 북한전체 인구의 22.2%였다.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지역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종교억압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토지개혁과 같은 반제반봉건 개혁조치의 장애물로 간주된 종교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기독교와 불교를 배척하는 대신, 천도교는 상대적으로 용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까지는 북한의 종교활동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다. 전쟁으로 극심한 물적, 인적 피해를 당한 결과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연관되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분분류를 통해 10만 가구 규모의 종교인을 통제하고 반종교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지형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정당, 직장, 학교, 근로단체 등 공공기관을 통한 반종교선전으로 공식적인 종교의식은 사라졌으며, 어떤 종류의 예배의식이나 종교모임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종교활동은 점차 활기를 찾아갔다.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진보적 남한 기독교인들과의 통일전선 구축 차원에서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였던 조그런, 조불련 등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 시기의 북한의 종교활동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즉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소위 공식종교 내지 체제협력적 종교가 태동된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조직을 강화하고, 평양신학원을 재건(1972년)하였으며, 성경과 찬송가를 편찬(1983년)하는 한편, 강량욱 등 종교지도자들의 해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1988년을 고비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1988년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에 기독교회가 있음을 과시한다. 1989년에는 조선기독교련협회를 발족시키고, 1992년에는 칠골교회를 건립한다. 불교계도 1986년 제15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조선불교도연맹이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1988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등의 중요 절기의 기념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 시작된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

이며, 체제의 내부구조적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탈냉전 이후 북한종교정책의 변화는 1992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종교관련조항에 반영되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구체화하여 종교활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종교활동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은 종래에 지녀왔던 북한의 종교정책이 이전에 비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에 대해 북한은 “종교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종교에 대한 김정일의 주체적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대남전략과 대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종교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따라 종교관도 크게 변화되었다. 주체사상은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으로 보았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바,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종교관이 종교를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단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 위주로 해석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발생근원과 종교교리, 종교기구와 단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식량난 이후 북한의 종교지형

1990년대 중반이후 계속되었던 자연재해와 1980년 후반부터 악화된 북한경제의 쇠퇴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위기는 각기 다른 계층 주민들에게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대다수는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짐을 보는 행위가 늘어났고 점집이 더욱 성행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995년까지 1개 시·군에 불과 30여명에 불과하던 점쟁이가 1996년 이후에는 100여명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으로 늘어난 탈북자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탈북자 선교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만 해도 2001년 11월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전도사가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고 추방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4월 최봉일 목사, 5월에 전명근 목사 등 3명이 불법선교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되었다.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한국계 미국인 목사(최 존 다니엘)를 포함하여 10여명이 넘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2002년 5월 28일, 기독교인을 비롯해 주민의 종교활동이 당국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I에 의하면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돼 고문과 굶주림, 사형 위협에 처해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2002년 2월 22일, 북한에서 비밀리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당국에 붙잡힐 경우 가혹한 형벌과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엔벤지역에는 남한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교회가 1백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정책의 변화 및 종교지형의 확대와 더불어 북한의 대외 종교교류와 협력활동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교

류협력을 통해 북한 내부에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개방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종교교류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그 동안 손상된 국가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는데 신중하게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와의 경협 증진과 대외무역 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교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종교단체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북한종교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기관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력이 성장하고 북한 국가기관 내의 다른 기관에 비해 외화벌이 실적이 탁월해짐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북한의 종교지도자들도 다른 정부관료들에 비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함으로써 핵심권력집단에 진입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반종교 선전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지 종교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의 만행을 열거하면서 혐오감을 드러내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편협한 것으로 비판하며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새로운 종교이해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담론의 공간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으로써 과거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편협한 것이며 또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앙인의 가족들은 변화된 종교지형 속에서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내리며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

다.

이러한 변화는 1992년 4월에 발간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뚜렷이 나타난다. 종교에 관한 부정적 평가나 비판이 거의 다 삭제되었으며, 그 대신 종교의 전개과정과 그 사상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1998년 4월에 발행된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에는 기독교와 선교사에 대해 더욱 전향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탈북자들을 통한 종교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3. 각 종교별 변화실태

북한의 개신교는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같이 예배당을 갖춘 교회와 예배당이 없이 신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소로 구분된다. 특히 가정예배소는 북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북한측에서는 북한에 약 520여 곳의 예배처소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평양과 남포, 개성에 각각 30개소, 평안남북도 각 60개소, 그 외의 도에 40개소씩 존재하고, 양강도와 자강도는 산간지역이어서 가정교회가 아직 없다고 한다. 이들 가정예배소는 장로나 집사 등 평신도에 의해 운영된다. 전쟁 이후 2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모들이나 친지들로부터 기독교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1만명이 있는데 이들 중 약 6천명이 10~15명으로 구성된 가정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공식적인 교회 이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신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약 100여 개의 지하교회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

제로 해방당시 북한의 기독교신자가 30만명 이상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교회는 공식교회이건 비공식교회이건 간에 대부분 과거 신앙인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교회의 신학성향은 북한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의 설교에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설교내용은 애국애족, 윤리도덕적 교훈 등이 중심을 차지한다. 북한의 구세대 목회자들이 주로 애국애족과 윤리도덕의 측면에서 설교를 한다면 신세대 목회자들은 통일신학의 입장을 훨씬 발전시킨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 북한의 교회는 윤리적 교훈을 강조한다거나 기독교를 애국애족의 종교로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이다. 그렇지만 종교정책적 측면이나 신학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불교는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협력하는 조직으로 탄생, 북한 정권 수립과정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종교에 비해 탄압을 덜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불교에 대한 북한 정권의 다소 유화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북한에 현재 사찰수가 60여 개, 승려수는 300여 명, 신도수는 1만여 명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불교신도를 1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석탄일과 같은 큰 기념일에는 절을 찾는 이들이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1989년에는 양강도 중흥사에 북한 최초의 승려교육기관인 불교학원(1991년 광범사로 이전)이 건립되었다. 불교학원은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약 3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1기생으로 졸업한 승려들이 1996년부터 전국의 사찰에 배치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60여 개의 사찰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부가 보존되었거나 전소된 것을 ‘국보유적지’로 복원한 것이 대부분이며, 승려가

관리하는 조선불교도연맹의 소속사찰과 유물문화총국에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로 구별된다. 1991년 2월 복원된 대성산 광법사는 392년에 창건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평양시 모란봉 개선청년공원 내에 있는 용화사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위치하고 있어 남쪽에서 오는 불교신자들은 주로 이곳을 방문한다. 또 묘향산 보현사는 북한의 가장 큰 사찰로 주요 방북코스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사찰은 현재 종교적 의미와 기능은 상실한 채 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고, 법회도 형식적인 것이어서 신자들의 신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88년 천주교인협회(1999년 조선카톨릭협회로 명칭 변경)를 결성하고 장충성당을 건립하는 등 천주교 신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천주교는 장재인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주일마다 공소예배를 갖고 외국에서 신부가 방문할 경우 미사를 봉헌한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북한의 천주교인 숫자를 800명 정도라고 밝혔으며, 1,258명(1991.4), 3,003명(1995.10) 등으로 발언한 바 있어 천주교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의 천주교 신자수를 대략 3천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교황청은 북한지역에 교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카톨릭교협회를 천주교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폐쇄적이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교황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천주교회를 방문한 여러 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의 천주교회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 섬김, 주체사상과 천주교 교리를 조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국가교회의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조선카톨릭협회는 과거 천주교 신자 가정을 대상으로 잠재적 신자를 파악하여 전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카톨릭협회는 북한 천주교

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교회의 발전과 권익옹호, 신자 공동체의 유대강화, 세계 카톨릭교회와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북한의 대외 선전용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활동의 공개화와 교황청에 대한 개방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민족종교로 간주되고 있는 천도교는 북한 주민에게 종교본연의 활동보다는 정당단체로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다. 해방당시 천도교는 신도 2백80여만 명을 가진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이었으며 초기 북한집권세력과도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천도교는 북한의 사회 체제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종교이다. 북한의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한 조선종교인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도 바로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이다.

천도교청우당은 강령에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하고, 갑오농민전쟁, 3.1운동,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反日)성전에서 이룩한 선열들의 애국애족과 민족단합의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척양, 척왜 등 9개항을 기본과업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제반봉건투쟁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천도교는 현재 1만3천5백여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으며, 예배 형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 혹은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양에 100석 규모의 중앙교당이 있으며, 전국에 800개소의 전교실이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 직접 방문한 기록은 없어 그 실태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4. 향후 북한 종교지형의 변화 전망

북한사회의 전반적 변화의 속도와 범위, 수준에 따라 북한의 종교

지형도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2002년 7월 1일 북한정부는 물가조정, 임금인상, 개별기업소에 대한 계획, 생산, 판매의 자율화를 단행하였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면 북한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변화들이 국가통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탄압국’이라는 누명을 벗고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개방은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종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세계종교사를 통해 볼 때 종교는 국교 체제 → 준국교형 공인종교 → 통제형 공인종교 → 다종교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이러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전통종교가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상당한 규모의 신자를 기반으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바뀌고 사회주의 이념적 성향이 다소 약화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이 종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단번에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종교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처음에는 북한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용인할 것이며, 종교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종교활동의 허용은 세속 가치를 넘어선 절대신념체계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상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의 종교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종교지형은 지금보다는 훨씬 확대될 것이다.

5. 맺음말

세계적인 탈사회주의 변화 속에서 전향적으로 변화된 종교정책에 힘입어 북한의 각 종단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등 적극적인 연맹활동으로 각자의 종교영역을 확장시켰다. 한국전쟁 이후 반제의 사회적 분위기와 조직적인 반종교선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1세대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2세대, 3세대 신앙인의 남은 뿌리들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공간 속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사회 내부에 사적 종교활동의 영역도 형성되고 있다. 사적 종교활동이 북한당국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파악하는 느슨한 조직망에 속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적 종교활동의 영역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각 종단별로 넓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로부터 인권문제와 관련한 종교의 자유 허용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다. 1998년 결성된 국제종교자유위

원회는 특히 북한이 종교자유가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평화협정 체결시 종교의 자유 문제를 주요의제로 상정할 것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의 의미가 강한 바, 북한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이며, 북한의 종교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과정	6
1. 냉전기 북한종교정책의 전개	6
2. 전환기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29
III. 식량난 이후 북한의 종교지형	38
1. 식량난과 종교활동 증가	38
2. 인도주의 대북지원과 대외종교활동의 증대	47
3. 종교인식의 변화	62
IV. 각 종교별 변화실태	79
1. 개신교	79
2. 불교	96
3. 천주교	103
4. 천도교	107
V. 향후 북한 종교지형의 변화 전망	111
VI. 맺음말	119
참고문헌	122

- 표 목 차 -

<표 1> 북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32
<표 2> 남북 종교교류 현황	50
<표 3> 국내의 대북지원 현황	51
<표 4> 서울 대교구의 대북지원 내역	59
<표 5> 「조선말대사전」의 기독교 관계 용어설명	72
<표 6> 북한의 교회	80

I. 문제제기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전국적인 고난의 행군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북한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식량부족으로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의 인적 손실을 입고 빈곤층이 대폭 증가했으며 가족해체 현상도 늘어났다. 사회주의적 경제토대가 흔들리고 장마당에서의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집단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는가 하면,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 및 탈북자 증가로 주민들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유통이 증대하여 불만과 비판 의식이 커졌다.

식량난으로 변화된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로 종교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졌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볼 만한 현상이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이 생존을 위해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지원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의 증가가 북한 내 종교활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중국경 월경자들의 왕래가 잦은 상황에서는 북한 내 종교활동의 공간이 넓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만은 분명하다.

탈북자들의 활발한 종교활동은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 가운데 80% 이상은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 가운데 종교관련 NGO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종교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대한 종교단체의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목사·선교사들의 소식도 잦아졌다. 탈북자들을 대

2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북한지역에 종교가 상당히 전파되고 있다는 주장도 신빙성 있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북한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한 가혹한 처벌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내 종교활동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2002.2.22)가 남한 NGO단체인 '좋은 벗들'의 증언을 인용·보도한데 따르면, 2001년 11월에만 적어도 3차례에 걸친 기독교도에 대한 처형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I)도 2002년 5월, 북한 내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돼 고문과 굶주림, 사형 위협에 처해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표(2002.5.28)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경제난·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남한 종교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종교계를 전면에 내세워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종교활동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해외거주 종교인들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직접 방북하거나 제3국 등에서 북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접촉을 유지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활발한 대외 종교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종교활동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매우 회의적이다. 근래 들어서는 인권문제 차원에서 북한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위원 9명(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각각 3명씩 지명)으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를 설립하였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0년부터 해마다 종교자유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2년 5월 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적 자

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종교적 활동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것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하는 게 틀림없다”며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국으로 지목하였다.

탈냉전과 더불어 북한은 각 종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체제내에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민족주의 통일전선 형성의 전위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북자들 가운데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이 김일성 시대에 훨씬 자유로웠으며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1998년 이후 종교활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식량난 이후 전반적으로 변화된 사회상황 속에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종교인협회 등 각종 언론기관과 종교협회 등을 통해 미국 등 외부세계에서 제기하는 북한 내 종교억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내 종교문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종교교류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종교계 인사의 미국방문을 추진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비롯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미한국인 목사 등 미국 종교지도자의 북한 방문을 초청해 봉수교회 등 북한내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2002.6.26)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기독교, 카톨릭, 불교, 천도교 등 각 종교의 활동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종교활동이나 북한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북한종교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고,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종교의 존재양식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하고 북한종교의 현황이나 실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종교인들의 규모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종교인들은 정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밀신자들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대북지원이든 민족주의 통일전선 구축 차원이든 북한은 종교인들에 대한 대남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종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확보의 필요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평화공존의 초석을 놓는데 종교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는 적극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전반적인 종교현황과 각 종교별 종교활동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달라진 북한의 종교정책과 식량난 이후 변화된 북한의 종교지형을 살펴보고 북한의 종교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북한종교실태에 관한 본 연구는 소위 주체사상의 신앙으로 일색화되어 있는 북한사회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보편종교의 영역 확대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과정에 종교단체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종교의 변화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민간 대북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종교조직과 실태에 관한 문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방북종교인과 대북지원 및 탈북자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통해 최근 변화된 종교의 자유도와 종교보급 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제I장 문제제기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북한종교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냉전시기 종교활동과 민족주의 통일전선 구축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보 필요성으로 달라진 탈냉전 이후 북한의 종교정책을 설명한다. 특히 탈냉전기 북한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김일성과 김정일의 종교관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식량난 이후 변화된 북한의 종교지형을 살펴본다. 식량난 이후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북한 내 종교활동 공간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식량난 이후 달라진 대외·대남 종교활동 내역과 변화된 종교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종교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등 각 종교별로 조직현황과 성직자, 신도현황, 종교시설, 종교의 자유, 비밀신도 유무 등을 포함한 신앙의 형태 및 신앙의 내용을 살펴본다. 각 영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점검하고 현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제Ⅴ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종교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제Ⅵ장에서는 북한종교정책과 종교실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II.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과정

1. 냉전기 북한종교정책의 전개

가. 종교의 배척: 해방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지역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억압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찍부터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민민의 아편’으로 규정하여 종교활동을 적대시하였다. 맑스(Karl Marx)는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의 행복과 보상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불평등과 불의로 점철된 현실세계의 비인간적인 사회질서를 용인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이념적 맥락에서 북한은 종교를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결국 아편과 같은 것으로 보고 종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선기독교도연맹’(1946.11)과 ‘조선불교도연맹’(1946.11) 등 국가차원의 어용종교조직을 결성하고 기존의 민간종교조직을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종교배척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기 전까지 종교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반제반봉건 시기로 체국주의적이거나 봉건적이지 않은 모든 역량을 결집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가 용인된 때였다.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소련군이 지원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나,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전선 형성 필요성으로 인해 영향력 있는 종교집단과 연대를 모색하였다. 1946년 2월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등 일제 식민지 잔재 및 전통 봉건적 요소들을

청산하는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사회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신속한 개혁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혁명주체세력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초기 북한의 종교활동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상당한 종교인구가 성장하고 있었다. 해방 이전 북한에는 개신교, 천주교 등 서방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었고, 불교, 천도교 등 전통종교도 교세가 성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종교의 영향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 천도교도 약 150만명, 불교도 약 37만5천명, 개신교도 약 20만명, 천주교도 약 5만7천명, 총계 약 200만여명의 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¹⁾ 그 당시 북한인구(916만명)를 기준으로 볼 때, 불교인은 전체인구의 약 5.5%, 천도교인은 약 16.4%, 개신교인은 약 2.2%, 천주교는 약 0.6%로 종교인은 북한 전체인구의 22.2% 수준이었다. 성직자는 승려 732명, 목사 908명, 신부·수녀·수도사 등 262명이고, 교당이나 사찰수는 천도교 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약 2,000여개, 천주교 교구 4개 등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²⁾

초기 북한의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종교인구가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방 당시 조직화된 집단 중에서

1)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다산글방, 1992) p. 149;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역사비평』 (1992년 여름), p. 109.

2) 기독교와 관련하여 해방전 북한지역의 신도수가 30만명을 넘으며 교회수도 3,0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해방이전에 현재의 황해남도 지역에 513개, 평안북도 지역에 452개, 평안남도에 439개, 황해북도 지역에 348개를 포함하여 총 3,022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찬영 편저, 『북한교회 사진명감』 (서울: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0), p. 10.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이었고 지식층의 집결지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해방 직후 일제의 어용조직이 급속도로 해체 혹은 무력화되고 아직 새로운 대중조직들이 건설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종교세력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었다.³⁾ 특히 천도교와 서북지역에서 급성장한 기독교 세력은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종교세력으로 존재하였다.

종교세력을 용인하는 초기 북한의 종교정책은 러시아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 이후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연합하는 종교용인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1946년 10월 12일 소련군은 북한으로 진주할 당시 「북조선 주둔 소련 25군사령관 성명서」를 통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허가한다”고 선언했다.⁴⁾ 이러한 러시아의 종교용인정책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혁명을 최종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종교 세력들이 혁명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은 1946년 전체 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 하고 전체 공민이 성별, 신앙 및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치경제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초기 종교정책이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유대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 북한에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의미의 종교의 자유

3)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p. 149.

4)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 교회사」 p. 20.

는 허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정권과 종교인들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과 탄압이 진행되었다. 종교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반제반봉건 혁명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서북지역의 개신교 신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 부르주아 층으로 계급투쟁적 성격을 띠면서 종교탄압이 전개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정권은 부르주아가 다수인 기독교세력에 대해 탄압의 수위를 높였고 기독교세력은 북한보다는 남한의 체제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종교자체의 이유를 들어 종교인들을 탄압하기보다는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경제·사회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종교 외적 관점에서 종교를 억압하였다. 다시 말하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모든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특정 종교를 척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 농민층을 기반으로 했던 천도교의 교세 확장과 비교하면 이것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사회적 성분에 의한 종교의 핍박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초기 북한의 반제반봉건 개혁으로 불교와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불교의 경우, 토지개혁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사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달간 실시된 토지개혁 당시 대부분이 사찰토지였던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 총 14,855정보가 몰수되었다.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사찰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였는데, 석왕사의 경우 4천여 정보의 토지를 모두 몰수당했으며,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승려는 사찰을 떠나 3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10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했던 보현사, 건봉사, 유점사, 귀주사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일정수 이상의 배급을 금지하였는데, 예를 들면, 200여명의 승려들이 있던 석왕사에서 30명, 그 외의 작은 사찰은 그 규모에 따라 5명 이하에 축소 제한

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북조선 불교 총무원 아래 518개의 사찰이 있으며 승려수 732명, 신도수는 375,438명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⁵⁾ 이로써 사찰운영의 근거가 사라지게됨에 따라 승려의 사찰거주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김일성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교시를 내림에 따라 승려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몰았고 승려의 탁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1946년 4월 23일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위원회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때 무상 몰수된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가 전체 토지개혁 대상의 1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기독교는 토지개혁 등으로 교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성당, 사찰, 교회의 몰수 소유지는 1만 4,400정보로 전체 몰수토지 100만 정보의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종교인의 토지는 5정보 미만이라도 민족반역자라는 구실하에 우선적으로 박탈되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당시 반혁명계급으로 희생되었던 35만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⁶⁾ 김일성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며, 토지개혁에 협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반동적인 장로, 목사로서 땅을 안가졌던 자가 거의 없고 놀고 먹지 않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에게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놈들은 40년전부터 종교를 통하여 조선땅에 자기들의 사상적 영향을 퍼뜨리려고 광분하여 왔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반동적 장로, 목사들을 길러내고 비호하는데 힘을

5)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0) p. 365.

6)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 교회사』, p. 19.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신자들 가운데는 미국을 무조건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동적 목사들은 우리 인민이 똑똑하여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계몽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 당을 싫어하며 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습니다.⁷⁾

북한지역 천도교는 일제하에서 조국광복회를 통해 후일의 노동당 지도세력과 공고한 유대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혁명지지의 경향이 강했다. 개신교에 비해 조직화의 속도가 느렸지만 큰 탄압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정권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교세가 성장하였다. 1947년 2월 1일 천도교북조선총무원이 설치되고 교무조직과는 별도로 서울의 천도교 청우당 본부는 1945년 10월 하순부터 북한지역에 수십개의 군당부를 설치했고, 1946년 2월 8일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을 결성했다. 1947년 6월 당원수는 약 40만명, 1947년 말에는 60만명으로 늘어났다. 천도교에 대해서 “1946년 2월 1일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이 창설되었으며 현재 99개소의 시·군 종리원과 그 아래 구·면·리 종리원을 가지고 교인들을 포용하고 있다. 교인들은 자기들의 정당 청우당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종교가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종교배척정책을 추진해 왔다. 1946년 3월 23일 「김일성장군 20개조 정강」 제3조에서 “모든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였지만, “국내에서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와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 파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개인의 활동을 절대로 금지한다”고 함으로써 신앙활동은 ‘반동

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249~250.

분자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개인 상업활동법(1946.10)의 제정으로 기독교 신앙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1946년 10월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고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개인의 상공업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배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배급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배급 수에서 초과된 성직자들은 성직을 버리고 노동자, 농민으로 환속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원칙에 의해 성직자도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고 신도들의 헌금은 '착취행위'로 받아들여져 금지되었다. 1950년 5월 5일자로 공포된 북한형법 중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에는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258조),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종교활동의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고 종교행사 자체를 금지시켰다.

북한에서는 해방 당시 기독교는 천도교보다 교세가 약했지만 천도교는 하층 농민에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천도교에 대해서는 온화정책을 취한 반면, 기독교는 소시민적 중산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독교에 대해서는 탄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48년 3월 1일을 기해 천도교도들이 3.1재현운동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천도교에 대해서도 탄압이 가해졌다.⁸⁾ 불교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달리 산악불교가 많고 이북의 민중에 충분히 침투할 힘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불교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다른 종교에 비해 손쉬운 상대였던 것으로 보인다.⁹⁾

8) 사와 마사히코, 위의 글, p. 15.

9) 사와 마사히코, 위의 글, p. 15.

이 시기 종교인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통일국가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강요되었다. “조선의 하늘을 믿으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종교활동은 외세로부터 차단되어야 하고, 민족자주성 위에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종교활동에 대한 북한지역의 사회적 요구는 반제반봉건 과제의 해결을 위해 통일전선에 참여할 것과 제국주의적 요소를 청산할 것, 혁명과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할 것, 자주적인 신앙 및 신학형태를 창출하고 발전시킬 것 등이었다. 당시 북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으로 드러났던 종교인들을 포섭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선까지 이들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와 동시에 계급정책을 실시한다는 명목 하에 민주개혁을 강행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기반을 박탈하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나아가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계급의식을 주입하기 위하여 반종교투쟁을 전개, 점차 종교활동을 매몰시켜 갔다.¹⁰⁾

나. 종교억압과 반종교선전: 한국전쟁부터 1972년까지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종교정책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쟁으로 극심한 물질, 인적 피해를 당한 결과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연관되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군의 무차별적 공습과 반공 종교인들의 행태는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이고 그 앞잡이라는 인상을 일반 주민들에게 남겼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에게 탄압의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10) 변진흥, “북한 ‘침묵의 교회’와 공산주의: 북한의 소비에트화 시기를 중심으로,”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88.

전쟁 이후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굳힌다. 전쟁 이후 농업협동화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노동당내 권력투쟁을 일단락 지은 북한 지도층은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들을 광범하게 동원하는데 필요한 성분조사 사업을 전개하였다. 1958년 5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고 2년 동안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실시하였다. 1958년 8월부터 ‘인텔리개조운동’을 전개하여 구인텔리들의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청산하고자 하였다. 종교집단과의 통일전선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 시기 북한 종교인들은 사회주의권 종교인들의 평화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갔다. 주민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이 반혁명적 요소로 구분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재등록사업시 51부류로 분류하면서 기독교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이 때 파악된 종교인과 그 가족의 숫자는 약 10만 가구 4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¹¹⁾

전쟁 이후 1972년까지 북한의 종교 현실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차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 시설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고 많은 종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전쟁 중 희생되었으며 미국과 조금의 관련이라도 있는 것들, 특히 기독교는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 전쟁의 혹독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미·반제적 성향과 반기독교적 정서를 갖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반공적 성향도 북한사회 안에 반기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성분조사사업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을 비롯한

11) 이항구, “북한의 종교탄압과 신앙생활,” 『현실초점』 (1990년 여름), p. 111.

종교인들은 잠재적인 반혁명분자로 지목되어 일상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사상교육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른바 반종교선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당국은 전쟁 이전부터 견지해온 통일전선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반혁명분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노선을 지속하였다.

이 시기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종교의 비과학성과 비현실성을 해설하며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종교에 대한 탄압,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반종교 선전을 위해 1959년에 출판한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정하철)라는 책자에 의하면, 종교의 간판을 이용하여 반혁명적인 음모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반체제적인 종교인과 비밀조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1957년 8월의 제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기독교인 이만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적인 선거거부 투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반종교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하였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1958년 무렵 전후 복구와 집단화가 마무리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적 투쟁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남은 종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종교인들 가운데도 핵심계층에 해당되는 노동자, 빈농, 사무원, 전사자 가족 등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쟁의 영향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인들을 더 이상 포섭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북한 사회 안에서 종교의 입지가 줄어들었음이 확실하다.

북한당국은 반종교선전의 계몽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서적을 출판하

고 사상교육에 활용하였다.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정하철, 로동당출판사, 1959), 『인민의 아편』(김희일, 민청출판사, 1959),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로재선, 민청출판사, 1959), 『이제는 남조선에서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로재선, 로동당출판사, 1959), 『종교도덕의 반동성』(백원규, 민청출판사, 1959), 『생활과 미신』(조선녀성사, 1959) 등은 대표적인 반종교선전 책자들이다.¹²⁾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같은 잡지들을 활용하여 반종교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당국이 전개한 반종교선전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 ‘최학신의 일가’(1966년)와 성황당(1969년)이다. ‘최학신의 일가’는 최학신 목사의 가족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학신목사의 일가족은 기독교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미국사람들을 신뢰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야만적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반미주의 투쟁에 나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최학신의 일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선교하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영화는 최학신목사를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신앙과 미국에 대한 환상이 결합된 철저한 ‘숭미주의자’로 묘사한다. 이러한 숭미의식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갖게된 사상의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기독교 신앙생활의 해악성을 폭로한다. 이 영화를 통한 반종교선전의 특징은 ‘미국=기독교’라는 등식을 설정하고 최학신은 미국을 하나님으로 믿고 무조건 숭배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최학신의 일가’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결국 반미주의이며, 반미주의를 통해 반기독교, 반종교적 정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도 이에 대해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나 신앙 그 자체를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미제를 《하느님》으로 믿고 섬기는

12)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 1998), p. 223.

숭미사대주의자를 문제시하여야 하며 미제를 환상적으로 대하는 립장과 태도를 문제시하여야 합니다”¹³⁾라고 명확히 지적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감정은 사상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최학신목사가 겪는 모든 가정적 비극도 바로 그가 가진 맹목적 숭미주의에 기인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종교선전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모든 사상선전 활동이 그러하듯이 상황을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극적인 대비효과를 사용한다. 예컨대, 최학신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어온 미국사람과 신뢰를 중시한다. 미국인들의 야만적 행동을 보면서도 그것이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특정 미국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간주한다. 최학신은 미국인 킹그스터가 자기의 딸을 살해하는 상황에 이를 때 까지도 미국인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결국 최학신은 미국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한 후에야 미국인에 대한 기대를 접고 반미주의자가 된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대비시킴으로써 반종교선전의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최학신목사의 아들은 다른 상황을 대변한다. 즉 아들은 미국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맹목적으로 믿는 숭미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을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공미분자’로 묘사된다. 아들은 미국의 만행에 강한 민족적 모욕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남한군의 장교로서 고민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지만 같은 민족에 총을 들이 대야 하는 극적인 순간에 이르러 공미의 사상적 속박에서 벗어나 반미주의자가 되는 단호한 행동을 선택한다. 결국 미국의 편과 민족의

13) 김정일,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6.12.27),”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81.

편으로 양분하고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은 민족반역자로 규정, 반미주의 노선을 취하도록 강렬하게 형상화한다.

반미주의 정서를 고취하기 위해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인의 성격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미국인이라고 모두 무자비한 사람들만이 아니며, 각기 자기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무자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집요하게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침략적 특성을 그려낸다. ‘최학신의 일기’의 내용에 대해 김일성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영화의 대사와 액션에 대해 꼼꼼히 지적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적에 따라 수정대본을 다시 올릴 정도였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시의 반종교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1969년에 제작된 연극 ‘성황당’은 반종교선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성황당’은 무속신앙과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작품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원래 종교와 미신을 믿는 일부 사람을 풍자적으로 조소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을 폭로하고 자기 힘을 믿도록 인민을 깨우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색도 있는 독특한 양상을 가진 작품으로 된것은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을 발가놓고 인민들에게 자주정신을 심어주려는 교양적목적을 세운 것파도 관련되어있습니다.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갖은 굴욕과 무지몽매한 생활을 강요당하면서도 그것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이나 《신령》 만이 자기를 구원해줄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들을 깨우쳐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기 힘에 대한 자각을 가지도록 각성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¹⁴⁾

1960년 경에 이르러서는 북한 땅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은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기존 종교활동이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에서 종교활동이 실제로 사라졌다는데 대해 김정일은 1966년 12월 27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나라에서 종교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해결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에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선교사들에 의하여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전쟁전에 그 신자가 북반부에도 많이 있었는데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으로 레베당이 다 마사지고 미제의 살인만행에 의하여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신자들도 대동군의 그 목사처럼 각성되어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에는 종교를 믿고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종교문제에서 자그마한 것도 제기되는 것이 없습니다.¹⁵⁾

종교에 대한 북한당국의 박해는 종교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더욱 탄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

14)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4.20),”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23~224.

15) 김정일,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p. 181.

일성 스스로도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여 낙제시키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을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라고 개탄할 만큼 종교에 대한 박해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¹⁶⁾ 김정일은 1966년 12월,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며칠전에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보시고 이 영화가 우리 나라에서 아직 종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종교문제가 없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종교가 어떻게 없어졌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개조되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가 강동군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가 대동군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가 하는 것은 관계없이 목사가 미국놈을 반대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¹⁷⁾

김일성의 이러한 우려를 통해서 볼 때 당시에도 분명히 종교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통한 선전홍보활동은 북한주민들을 교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말처럼, 영화를 만들기 전에 국가정책에 의해 상당부분 이미

16) 안희국, 『낙농대신문』 (일본어), 1961.7.14;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후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21에서 재인용. 신자의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나 여러 소년단체 속에서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힐문당하여 울며 돌아오는 이야기는 아주 흔하였다고 한다.

17) 김정일,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 p. 181.

종교활동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문제는 사회문제로 남아 있었고, 종교문제로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반종교 선전물을 통해 교육하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67부터 1972년 사이에 추진된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라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볼 때, 남아있던 종교인들에 대해 이 시기에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적극적인 반종교선전으로 인해 북한의 기독교는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종교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하여 종교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설복과 교양, 계몽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신문, 서적, 영화, 연극,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하며, 종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종교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깨닫도록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상층중심의 통일전선활동으로 종교활동이 전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가정예배 형식의 신앙형태가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종교 활동이 정당, 직장, 학교, 근로단체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행해졌으며, 공식적인 종교의식은 사라졌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을 제외한 종교단체도 없어졌다. 기독교는 불법화되었고 북한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예배의식이나 종교모임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1972년 12월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반종교 선전의 자유’(제54조)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다. 제도종교의 허용: 1972년부터 1988년까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종교활동은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듯 하다. 1960년대 말 반종교선전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1970년대 초부터는 북한에 종교인이 사라졌다고 선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적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이고 저명한 종교인들은 여전히 정부 안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1972년 남북대화가 본격화 된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한 대외활동을 개시했다. 북한의 종교인들은 국제적인 종교단체에 참가하거나 교류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다시 종교단체가 등장하고 종교활동이 시작된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회담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즉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였던 이른 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의 종교정책은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결성 및 활동에 목적을 두었지 종교활동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한기독교인들의 진보적인 반정부 투쟁과 연대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내포되어 있었다.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 등 북한 사회의 종교에 대한 통념, 즉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의 침병이라는 인식과 상충되는 남한의 반체제 종교인들의 소식으로 인한 자극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북한의 종교활동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1972년의 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기한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반종교 선전이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정책으로 선교활동이나 포교활동을 합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종교억압정책이다. 북한이 1972년에 이르러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삽입했다는 사실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종교억압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했음을 반영한다. 1972년에는 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전면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가주도적 종교활성화 정책에 근거하여 가시적인 종교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소위 공식종교 내지 체제협력적 종교가 태동된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조직을 강화하고 가입 신자 수도 증가하였으며 종교지도자들의 해외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972년 평양신학원을 재건하고 1983년에는 성경과 찬송가를 편찬하는 등의 사업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신학교의 재건은 그 동안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 부주석 강광욱 목사 등 체제협력적인 종교인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체 신학교 설립을 통해서 체제협력적인 기독교가 자체 내에서 재생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정일은 1977년 11월 4일 문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의 담화에서 종교는 비과학적이며 비주체적이라고 비판한다.

이 명작에는 종교와 미신은 거짓이며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나 《귀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사상적 알맹이가 심어져있습니다. 혁명연극 《성황당》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느님》이나 《귀신》이 아니라 자기자신이며 사람의 힘이 제일이라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의 철학성이 있습

니다. 명작의 이 심오한 종지는 《하느님》이나 《귀신》의 힘을 빌어 더 높은 권세와 더 많은 재물을 얻어보려고 미쳐 날뛰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함께 종교와 미신은 허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힘을 자각하는 마을사람들의 각성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¹⁸⁾

이 시기에 국제정세가 미·중테탕트 무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을 비롯한 종교집단은 활발한 대남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인 북한 종교인들의 통일전선사업은 대폭 증대되며 내용도 풍부해진다.¹⁹⁾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양육목사는 1972년 9월 남북한 그리스도인 직접접촉을 제안하였고, 조그련은 조불련과 함께 남한내 민주화 사건과 관련한 비난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조그련은 1975년 1월 인도 고타암에서 열린 ACPC 총회와 1976년 11월 체코의 부르노에서 개최된 WCPC 정치·경제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북한당국의 반종교선전은 계속된다. 이 시기의 반종교선전의 특징은 통일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몽하고 설득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종교를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과 연합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북한은 1973년부터 남한의 종교인들이 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노동신문이나 역사서적에 남한종교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18) 김정일,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471~472.

19)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p. 196~208.

방향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취한다. 북한종교인들의 애국적 역할에 대한 찬양의 빈도도 점차 늘어나며 남한종교인들과 전세계 종교인들에 대한 의식적인 언급이 많아졌다. 1976년 당이론가 허종호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빠져있던 종교인들을 혁명의 보조역량에 포함시키고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는 남조선의 “상층종교계 인사들 가운데는 하층 신도들과 함께 현 군사파쇼 통치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 시기 남조선에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은 반파쇼민주화의 정치적 목표를 그 기초로 한다”고 말한다.²⁰⁾

라. 공식종교의 인정: 1988년 이후

1988년 이전까지 북한은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철학사전』에 규정된 대로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당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넓은 사상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보았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김일성의 견해에서도 뚜렷이 발견된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종교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적

2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리론과 남조선혁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pp. 112~113. 양호민, “북한사회주의의 실상,” 『소련 동구 중국 북한』, pp. 210~211에서 재인용.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남반부에 나가서 종교와의 투쟁을 잘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에게 종교의 본질과 그 해독성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²¹⁾

이러한 평가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종교의 본질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념과 동일시하며, 종교의 기능을 지배계급의 착취도구나 이용물로 보기 때문에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과 같은 종교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북한이 1980년대 이전까지 종교제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민들을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가 북한에 전혀 없음을 자랑하게 하였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1988년을 고비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중요 종교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맞게 된다. 1988년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에 기독교회가 있음을 과시한다. 천주교는 1989년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는 구별된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인 조선카톨릭협회(당시 조선천주교인협회)를 발족시키고, 평양에 새로 지어진 장충성당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1992년에는 개신교회인 칠골교회를 또 건립한다. 불교계도 1986년 제15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조선불교도연맹이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1988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등의 중요 절기의 기념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고, 보현사에 보관중인 팔만대장경의 번역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한다.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건립된 1988년 10월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석탄절 기념법회, 천도교 창도일인 천안절

21)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52.

기념식을 갖는 등 종교시설의 존재와 종교의식 거행을 과시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에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1980년대에 시작된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문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이 시기에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신설과 사찰복원·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대외선전활동의 일환으로써 주민차원에서의 보편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교단체들도 포교활동보다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국제외교적인 고립상태를 모면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용한 통일분위기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종교단체들은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 등 5개이다. 1989년 5월 30일 결성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북한의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각 종교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북반부의 모든 종교인들이 평화와 통일과 애국애족의 민족적 이념 밑에 하나로 굳게 결속하기 위해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단순한 종교인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치적의도(통일전선 구축)가 그 결성 배경임을 알 수 있다. 협의회의 임원진을 보면 회장 유미영(조선천도교 중

양위원회위원장), 부회장 강영섭(목사,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위원 박태호(대선사,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철(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1980년대까지 계속 활성화되던 북한의 종교 활동이 1988년이라는 시점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내부의 구조적 시각에서 보면 전쟁 이후 한 가닥의 가느다란 실처럼 맥을 유지해온 신앙인들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말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거주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산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던 신앙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졌던 것 같다. 이 시기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건축된 것은 이러한 내부구조적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변화들이 모두 각 종교의 중앙 조직 차원의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정부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정황으로 보아서 같은 해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올림픽의 공동 개최 혹은 그 반작용으로서의 1989년의 세계청년학생축전 등을 대비하기 위해 종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외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88년 북한에 영향을 준 다른 사건을 찾는다면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 그리고 문규현 신부의 방북을 꼽을 수 있다. 남한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들의 마음가짐과 용기는 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던 북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기독교에 대해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변화는 1992년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서 감지된다.

『조선말대사전』에서 미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종교, 불교, 중, 기독교, 성경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1989년 종교학과를 개설하고 기독교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종교서적 2천 5백여권이 비치되어 있고, 종교학과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 세계 5대종교를 종교학이라는 학문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 담당교수들은 대개 역사·문학 분야의 학자들이며, 재미동포 신학교수들을 초청, 교환강의도 하고 있다. 종교학과는 한 학년당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고 5년 제이며, 1994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도서관에 비치된 남한 출판 종교서적들은 제3국을 통해 우회적인 루트로 1992년 제공된 것이며, 책에는 ‘김일성주석이 배려하신 도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한다. 모두 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보다 긍정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2. 전환기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가. 법제도의 변화

앞서 지적한대로 북한의 종교정책은 1988년을 계기로 그 성격이 달라졌다. 종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종교기관에 대한 지원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 때를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공인된 종교적 성소, 곧 교회와 성당, 그리고 절에서 종교고유의 의식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1989년 말 현재 개신교 교회가 둘, 천주교 성당은 하나, 그리고 전국에 3백명밖에 안되는 불교 승려들이 있는 50여개의 사찰일 망정, 각각 전

통적인 종교신조를 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인을 얻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닥쳤다. 북한은 종교인들을 해외에 순방시키거나 국제종교회의에 참석시켜 북한에도 종교가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반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성경번역을 비롯하여 불교경전의 해제집을 출간하고 국내외 종교인의 방북 허용, 사찰의 보수와 교회 및 성당의 건립 등 종교의 존재를 천명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를 보여준 분명한 근거는 각종 종교단체들의 대외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후 북한정권의 비호아래 창립된 유명무실한 종교단체들은 한국전쟁 후 거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북한언론에 그 활동상이 보고되고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해졌다.

1989년 6월 북한의 종교인협회가 한국 종교협의회와의 종교인 회담을 제안하면서 내세운 의제가 바로 통일과 민족의 화해였다. 북한 종교단체의 모든 공식문서에는 이 주제가 반드시 포함된다. 1981년 처음으로 열린 해외동포 기독교인들과의 모임 역시 그 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의 대화’였다. 불교행사도 ‘조국통일 기원법회’가 주종을 이룬다.

문학, 예술, 체육등 모든 사회생활 자체가 곧 정치와 직결되는 전체주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핵심 노동당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김일성이 제시한 ‘1995년 통일’이라는 단일목표에 대한 종교계로서의 화답인 것이다. 여기에서 대남전략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종교가 이용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정책은 통일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종교는 체제종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모두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산하에 예속되어 있다.

북한이 1992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종교관련조항을 획기적으로 손질하게 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구체화하여 종교활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1992년 개정된 헌법 68조에는 종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종교건물이 세워졌고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통해 북한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의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 같으면서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은 종래에 지녀왔던 북한의 종교정책이 이전에 비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

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면서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구체적인 표현을 삽입했는데,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급했던 1972년도의 사회주의헌법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또 종교활동이 정치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인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구절 중 ‘누구든지’라는 문구가 1998년 헌법개정 시 삭제된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이거나 신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북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제정 및 개정 시기	종교 관련 조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9.9)	제 2 장 14조 국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72.12.27)	제 4 장 54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1992.4.9)	제 5 장 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 1998.9.5)	제 5 장 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누구든지'라는 말만 삭제됨)

1995년에 들어와서는 남한이나 구미각국의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1995년 6월에는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 등 9명의 대표단이 한달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각종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종교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지만 북한땅에서 종교활동의 허용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기 종교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김정일의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 박승덕박사는 김정일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²²⁾

김정일의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탈냉전기 북한의 종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종교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종교문제에 대하여서도 잘 해설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22)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p. 189;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 81에서 재인용.

보장한다는 것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종교세력이 약화된 경위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종교세력이 약화된 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레배당을 폭격하고 종교인들을 살육하였기 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에 밝혀져 있는대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당에 마음대로 갈수 있지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속죄할 것도 없으니 교회당에 찾아가지 않습니다.²³⁾

나. 종교관의 변화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종교관도 크게 변화되었다. 박승덕에 따르면 종교에는 나쁜점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김정일의 긍정적인 승인 아래 이제 주체사상은,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으로 보았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관’을 내세운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의 평가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의 종교관은 종교를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단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 위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다시말해 마르크스주의는 ‘객관적인 세계를 형상적으로 반영한 의식형태’, ‘전도된 세계관’, 왜곡된 착취사회의 피상적 반영을 종교의 본질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박승덕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종교가 객관적 세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주체사상은 종교를 사람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란 객관적 세계보다는

23)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1일),”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4.

오히려 ‘인간의 본성적 요구’,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해 나왔다’는 것이 그 본질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종교관의 변화는 종교정책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고립된 국제관계를 유화적으로 풀어나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변화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변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북한종교단체와의 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기독교를 포함한 각 종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2년 출판된 『조선말 대사전』에는 종교를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념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지난날의 사고와는 현격히 달라진 모습이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평양의 주체사상연구소 박승덕 소장도 김정일이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승덕은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강의에서 기독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기존의 맑스주의에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편향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주체사상에서는 기독교를 “압박받고 핍박받는 사회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요구를 반영한 의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본질적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능동적인 종교이며, 이런 그는 기독교의 목적과 동기, 사명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교리와 내용에 있어서도 맑스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매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내세와 현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본다. 맑스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배계급에 복무하며 인민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²⁴⁾

탈냉전기 변화된 종교정책에 근거하여 종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북한에서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들의 활동을 다른 기관보다 중시하는 조선사회민주당은 당기관지를 통해 종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독려한다. 이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종교인식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협한 것이었음을 비판한다.²⁵⁾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발생근원과 종교교리, 종교기구와 단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종교의 발생근원을 거대한 자연의 파괴력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즉 고대에는 자연이 주는 피해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해 보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태동시켰던 측면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활동을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착취사회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에

24) 박승덕, “주체사상과 기독교” 강연.(1991년, 뉴욕).

25) 하용길,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조선사회민주당』 (1993.2), pp. 50~52.

서는 착취계급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즉 자연과 사회의 압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종교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종교를 미신이라며 무조건 매도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주로 종교교리가 굴종과 순종의 교리를 강조하며 인민들 속에서 금욕주의와 현실도피사상을 주입시키는 반동적 교리로만 평가하였다. 이러한 교리가 종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교리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기독교 교리에서 정의와 인도주의, 사랑과 화목이라든가, 불교의 권선징악과 평등의 교리,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평등의 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을 결부시킨 교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활동 자체도 변화를 반영하여 자주적 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Ⅲ. 식량난 이후 북한의 종교지형

1. 식량난과 종교활동 증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었던 자연재해와 1980년 후반부터 악화된 북한경제의 쇠퇴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교환 및 판매 등을 통해 최악의 식량위기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식량위기로 인해 달러경제 및 식량경제(food economy)등, 이중적인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국이 이러한 이중적 경제상황에 대하여 통제하려하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함흥이나 청진에 사는 주민들 중 아직도 가동되는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일한 대가로 식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청진 및 김책시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식량을 비롯한 전기, 난방, 물 등의 공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유아 사망 등 전체 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아주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정이 좀 나은 병원에서 조차 의료·약품의 공급 및 시설 미비와 함께 전기, 깨끗한 식수 공급부족 등으로 환자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 전체 인구 18%에 해당하는 44개군(county) 주민들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하더라도 식량 지원이 탁아시설 및 학교 같은 기관을 통해서만 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원조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식량기구(WFP)에서는 북한의 군(郡, county)을 분석 단위로 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군(郡)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는 북한당국과의 접촉,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얻은 질

적·양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인구 구성, 농업생산, 영양보급 및 성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정치적 개혁 없는 시장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지방분권 방식으로 조금씩 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시장화의 특징으로 달러유통의 확대, 집단 및 지역간 불평등 심화, 극빈계층의 증대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²⁶⁾ 북한 화폐인 원(圓)이 더이상 화폐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부터 달러가 그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뚜렷이 생겨나고 있다. 2002년 12월 1일부터 달러사용을 금지하고 유로화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달러화가 어떻게 진전될지 의문이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그 혜택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등 사회집단의 파편화와 지역·집단간 불평등 심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평양, 남포, 혜산 등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식량 사정이 더 낫다고는 하지만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총체적인 식량위기는 주민 계층간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화 획득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부 당 지도층은 다른 주민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도 정부관계자 및 당 지도부의 모든 계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위기는 각기 다른 계층 주민들에게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만이 혜택 받고 대다수는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 뚜렷한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특권을 누렸던 산업노동자층이 가장 빈곤한 계층 중 하나로 전락,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26) Hazel Smith, "Socio-economic change in the DPRK since 1995: Marketization without liberalization," 통일연구원 초청세미나 (2002.7.3).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점을 보는 행위가 늘어났다.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사람들에게 환각을 갖게 하는 미신으로서 ‘주체적 인간’이 믿을 바 못되는 몫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점’(占)을 본다든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는 토속신앙으로서 일종의 풍습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집안에 불상사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곤경을 겪을 때 그 해결책을 미신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점은 당간부들의 경우가 더 극심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불안으로 점집이 더욱 성행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995년까지 1개 시·군에 불과 30여명에 불과하던 점쟁이가 1996년 이후에는 100여명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점쟁이들의 복채가 엄청나 궁합의 경우 100원이며 미래예언이나 묘자리의 경우 액수가 엄청나서 일반주민들의 평균소득을 몇배나 상회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정주부들까지 가짜 점쟁이로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스위스의 유력 불어 일간지 ‘르 탕’의 평양 아리랑축전에 참석한 미하엘 와일러 특파원은 2002년 6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출발해 평양, 개성,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를 1주일여 걸쳐 차례로 방문한 소감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보도(2002.7.15)했다. 2002년 6월 27일 아침 안내원의 동행 없이 숙소를 나와 거리를 구경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북한 주민이 등뒤에서 접근,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했다고 전했다. 올해 47세로 구(舊)동독에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북한주민은 독일어로 지도층들은 풍요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해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 부인에게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교화소에서 1년을 보내고 최근 출소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주민은 이어 “북한에서 듣는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된다”며 “나는 젊은이와 노인을 가릴 것 없이 우리 주민들이 풀뿌리나 씨앗 등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땅바닥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전력 및 급수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등에 관해 언급했다고 와일러 특파원은 전했다. 평양에 한번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그 북한주민은 “평양은 전시를 위한 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에서 보는 것 중 어떤 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대화를 중단하고 사라졌다고 와일러 특파원은 덧붙였다. 와일러 특파원은 이 북한 주민과의 대화는 2분 이상을 넘지 못했으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정면을 응시한 채 길을 걸으면서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얼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탈북자 선교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만 해도 2001년 11월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전도사가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고 추방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4월 최봉일 목사, 5월에 전명근 목사 등 3명이 불법선교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되었다.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한국계 미국인 목사(최 존 다니엘)를 포함하여 10여명이 넘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는 한 단체의 “탈북 고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2002년 11월 18일자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엔벤지역 선교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8,9년 동안 이 지역에 적잖은 선교사들이 들어 와서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은 공명심에 눈이 멀어 자기들 공과를 자랑하고자 방송사 기자들을 동원해서 기획취재

하는 바람에 10년을 공들여 구축한 연변지역의 선교기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기선교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두만강, 백두산 코스를 정하고 관광사업을 해온 사이비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랑하고 보이기 위한 선교를 해 온 일부 단체도 있었으며, 남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결눈질하고 와서는 마치 자기들이 일한 것처럼 간증하고 다니는 파렴치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대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도케 하여 중국 공안당국으로 하여금 핏발 선 눈으로 선교사와 탈북자를 색출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해야만 했던 것은 기동이 원할치 못했던 탈북 고아들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선교회에서 돌보던 고아들도 여러명이 붙들려갔고 이들을 수용했던 미션 홈은 파괴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소수의 아이들을 빼돌려 선교사 한 사람이 2~3명의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보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아주 깊은 내지(內地) 산골짜기로 피신해서 숨어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이들을 중국 아이들과 같이 소학교에 보낼 수가 있었고 이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성적도 중국 아이들 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깊은 산골짜기 토굴에서 숨을 죽이며 근근히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실정하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보기에 안타깝지만 항상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바랍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의 보고

(2002.9.30)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0년동안 핍박과 탄압속에서 견디어온 살아 있는 순교자들! 안녕 하십니까? 저는 ○○회 ○○입니다. 북한 성도들의 이 소중한 신앙을 ○○의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9월7일 저는 ○○회 지도자들이신 ○○○와 ○○○와 함께 북녘에서 온 지하교회 교우들을 중국의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58년도 기독교인들 대 숙청 때 천우신조로 살아남은 성도들과 그 후손들로 신앙을 전수해서 이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찬송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의 글은 60세가 넘는 한 자매님이 눈물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하고 물었더니, “첫째도 쌀이요 둘째도 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교인이야,” “숙청 당한 집안이야,” “상종하지 말라,” “반동분자야” 이런 따돌림 속에서 살아온 50여 년 세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평생이었습니다. 탄광에서 또는 첩첩 산중에서 화전민으로 세상과 담쌓고 살아온 50년 세월,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반동분자로, 정치범으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혼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출신 성분이 나쁜 우리와는 혼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형제와 자매들끼리 사돈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평안 남북도에는 적어도 2천명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 집안과 형제들은 도륙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씨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천년도 부터는 인덕(仁德)정치, 광폭(廣幅)정치라는 말이 나오면서 조금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경책을 가진 것이 발견되고 종교 활동하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가차없이 처벌당합니다. 우리는 한번도 주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80세가 넘는 목사님도, 전도 부인도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스

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분들은 살아 있는 순교자들입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주님만 바라보고 소리 없는 기도를 얼마나 해왔던가요. 공홀히 여겨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참으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이보다 더 많은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하는 구절을 천에다 수를 놓아 가슴에 동이고 살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를 들고 거리로 뛰쳐 나설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여 드릴 증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남아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우리는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2002년 5월 28일, 기독교인을 비롯해 주민의 종교활동이 당국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I에 의하면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돼 고문과 굶주림, 사형 위협에 처해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2002년 2월 22일, 북한에서 비밀리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선교사들이 북한 당국에 붙잡힐 경우 가혹한 형벌과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²⁷⁾ 이 신문은 중국 옌지(延吉)발 기사에서 탈북 주민을 돕기위해 옌벤(延邊) 국경지대에 설치된 한국 인권보호단체 ‘좋은 벗들’이 2001년 11월에 만 적어도 3차례에 걸친 기독교도에 대한 처형이 자행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창현리에 살다가 2001년 말 중국으로 탈출한 한 북한인 농부는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는 적어도 한 달

27) 『연합뉴스』, 2002.2.28.

에 한 번 공개처형이 이뤄졌으며 처형자중에는 기독교 전도사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2001년 7월부터 조선족 집에 은신하고 있는 한 북한 여성은 공개처형이 있을 경우 모든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동원돼 처형되는 자들을 비난하고 돌을 던져야 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기독교 전파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 북한 당국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에서 처형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탈북자 출신이며 이들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도받고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다시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엔벤 지역 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인들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말씀선교를 지향하는 선교단체들은 탈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 현재 엔벤지역에는 남한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교회가 1백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999년 9월 9일 「국제종교자유보고서」 가운데 최근 10여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종교실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헌법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은 또한 “어느 누구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수년사이 북한 정권은 몇몇 종교단체의 결성을 후원했다. 이 단체들은 외국교회단체와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을 맡고 있다. 이들 단체의 대표들과 만난 일부 외국인들은 이들을 진실한 신자라고 믿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종교교리를 거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활동이 허용된 지역에 소수의 불교사원이 있으며 지난 1988년 이후 평양에 2개의 개신교 교회와 1개의 가톨릭 성당이 문을 열었다. 많은 외국 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당국과의 사전 조정 없이 이들 교회를 예배차 찾아갔던 방문객들은 부활절 일요일에도 문이 닫혀있었다고 말했으며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갔던 방문객들은 신도좌석, 성경 및 찬송가집 위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는 등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500개의 가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1만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운동에 기초를 둔 정부후원단체인 천도교 청년당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적 전도활동을 하는 사람은 체포돼 투옥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정권이 수용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종교적 관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반대자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신뢰할 만한 증인이 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투옥된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모든 종교는 아편”이라는 당국의 가르침에 따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로 간주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취급한 기간동안 종교자유에 관한 상황에는 변함이 없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 또는 투옥된 사람 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다. 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남아있는 소수의 미국 시민에 대해 개종을 강요했다는 보고는 없다.

종교자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없다. 정권은 외국의 정부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초청객들이 종교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식량난을 계기로 주민들의 국내이동과 탈북자들의 국경이동

이 늘어나면서 종교활동의 공간도 형성되고 있다. 국경을 왕래하는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에 종교가 새로운 이미지로 전달되며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손금을 보거나 물을 떠놓고 비는 행위도 생겨남은 물론 점을 보러 가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종교 없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종교욕구는 갖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경제동물(homo economicus)이면서 종교동물(homo religious)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 삶을 영위하지만 영적이며 정신적인 추동력에 의해서도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북한의 종교인 가족들을 조직에 묶어두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관제적 종교활동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종교활동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현상은 인간이 종교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2. 인도주의 대북지원과 대외종교활동의 증대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지형의 확대와 더불어 북한의 대외 종교교류·협력활동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개방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종교교류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그 동안 손상된 국가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는데 신중하게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와의 경험증진과 대외무역 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교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방세계권의 종교세력 및 남한 종교인들의 동향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자, 종교단체들의 대외적 활동을 통해 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대미관계 개선을 겨냥하여 종교인들을 대미 외교활동

에 활용하고 있으며 종교인들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남한이나 구미 각국의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가 하면, 같은 해 6월에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 등 9명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한달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각종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리종혁과 박승덕 주체사상연구소장 등 일행을 북미주기독교자협회 주체 세미나(1996.4)에 참석하게 하여 대미협상 및 관계 개선을 측면지원하게 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종교단체들을 외교적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종교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종교부재의 북한 땅에서 종교활동의 허용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종교단체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종교계가 대북쌀지원 문제로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동시에 기독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로 구성된 '범종단북한수재민 돕기추진위원회'(범종추)에 쌀을 포함한 수재지원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국정부와 종교계간의 마찰을 가능한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제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통일투쟁을 선동(1996.1)하였고,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와 합동전원회의(1996.2.2)를 갖고 정당·단체연합회의(1996.1.24)에서 제기된 대민족회의 소집을 위한 남북간 종교인들의 대화접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대북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북한종교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기관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력이 성장하고 북한 국가기관 내의 다른 기관에 비해 외화벌이 실적이 탁월해짐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북한의 종교지도자들도 다른 정부관료들에 비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함으로써 핵심권력집단에 진입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989년 6월 이후 2001년 12월까지 남북한 종교교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 390건(1,889명), 승인 334건(1,738명), 성사 144건(1,079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종교교류는 1991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종교분야의 접촉이 성사되었다. 이대경 목사(1989.7), 광선희 목사(1991.9, 1995.8), 권호경 목사(1992.1) 등의 방북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로 미국, 일본 등 제3국에서의 종교행사 공동참가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는 1995년 북한의 수재와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전반적인 남북교류의 흐름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1998년 이후 종교교류가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종교교류도 위축되었다. 2002년에 들어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보 차원에서 남한의 종교기관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였다.

남한정부는 1995년 6월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15만톤의 쌀(2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최초의 대북지원이었다.²⁸⁾ 이후 정부는 UN기구(WFP)를 통해 1996년에 305만달러, 1997년에 2,669만달러, 1998

28) 북한은 1984년 9월 서울·경기지방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수재민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쌀 5만석과 천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및 기타 의약품을 남한에 전달한 적이 있다. 통일원, 『통일백서 1995』, (서울: 통일원, 1995), p. 166~167.

년에 1,100만달러, 1999년 2,825만달러, 2000년 7,863만달러, 2001년 7,045만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4억5천만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WFP(세계식량기구)나 UNICEF(국제아동기금),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방식과 대한적십자사(한적)을 통한 직접지원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품목으로는 옥수수, 밀가루, 분유, 쌀 등 식량과 농산물 증산을 위한 비료, 의약품, 내의 등을 지원하였다.

<표 2> 남북 종교교류 현황 (1989.6.~2001.12, 접촉현황)

건 (명)

연도	신청	승인	성사
1989	10 (10)	5 (5)	
1990	16 (97)	15 (96)	2 (51)
1991	40 (155)	37 (142)	13 (86)
1992	38 (140)	30 (117)	7 (54)
1993	19 (65)	16 (62)	1 (1)
1994	23 (97)	16 (85)	4 (68)
1995	42 (213)	33 (187)	12 (94)
1996	26 (249)	16 (203)	7 (133)
1997	30 (141)	26 (134)	13 (90)
1998	55 (214)	51 (202)	35 (150)
1999	32 (222)	32 (218)	20 (148)
2000	43 (185)	41 (187)	21 (118)
2001	16 (101)	16 (100)	9 (86)
계	390(1,889)	334(1,738)	144(1,079)

<표 3> 국내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누계
한 국	정부	232,000	3,050	26,670	11,000	28,250	78,630	70,450	450,050
	민간	250	1,550	20,560	20,850	18,630	35,130	64,940	161,910
	계(A)	232,250	4,600	47,230	31,850	46,880	113,760	135,390	611,960
국제사회 (B)		55,650	97,650	263,500	301,990	358,710	181,770	246,470	1,505,740
총계(A+B)		287,900	102,250	310,730	333,840	405,590	295,530	381,860	2,117,700
A/A+B (%)		80.7	4.5	15.2	9.5	11.6	38.5	35.4	28.9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 유엔의 대북지원 사업이 개시된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지원은 총 21억 1,77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9%인 6억 1,196만 달러가 남한에서 지원되었다. 남한에서 지원된 대북지원 총량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인 1억 6천만 달러(1,960억원)에 이르며, 나머지 4억5천만달러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다.²⁹⁾ 남한 종교계의 북한지원 사업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1999.2.10)가 취해지기 전까지 창구단일화(1995.9)의 정책에 의해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1997년 3월 31일 민간지원에 제외되었던 쌀이 지원품목으로 허용되었다. 적십자사 지원은 1995년 9월~1997년 5월까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였고, 1997년 6월 이후 ‘한적’을 통해 남북간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창구다원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독자적인 종교계 대북지원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적십자사 창구

29) 2002년 5월말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억 7,823만 달러(2,17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제131호, 2002.5).

는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1996년 6월 북한동포 돕기운동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식량문제 국제회의를 개최(1997.3)하고, 감자 2천톤과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북지원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도 추진중이다. 민간단체의 독자창구에 의한 지원이 시작된 1998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33억 4천만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여 남한의 독자적인 민간단체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다.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는 206억 9천만원으로 2위, 남북어린이 어깨동무는 153억 6천만원으로 3위, 한민족복지재단이 138억 9천만원으로 4위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진벨재단(134억원), 굿네이버스(117억원), 제주도민운동본부(57억원), 월드비전(47억 9천만원),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42억 1천만원), 국제옥수수재단(36억원)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민간단체들은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의약품, 생산기술, 영농방법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9월부터 식량지원을 해온 재림교 개발구호기구(ADRA)는 1996년 11월 심장전문의 17명을 평양에 파견해 김만유병원에서 환자 12명의 심장수술을 하였으며, 교회간 의료지원(IMA)과 국제자선단체연합(MCI)도 1996년 1백만달러 이상의 의약품을 제공했다. 월드비전(World Vision) 미국지부는 평남평원군에 국수공장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미국 카터센터는 북한에 보리종자를 비롯하여 화학비료의 생산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옥수수의 다모작, 밀·보리와 벼농사의 2모작을 지원하는 등 영농방법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다.

UNDP, MSF(국경없는 의사회, 1998.9 철수), WCC(세계교회협의회) 등도 보리종자를 지원하고 영농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내 한인교회들도 이산가족들과의 상봉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이산가족들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 왔으며,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을 요청받고 돕기운동을 추진중이다.³⁰⁾ 지원품목도 의약품, 의류는 물론 비료,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고, 일회성의 식량 지원에서 국수공장, 빵공장 설립 등 지속적인 대북지원 형태로 발전하였다.

종교분야의 직접적인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총 47건, 232명이다. 1989~1994년 3건(3명), 1995년 2건(2명), 1997년 3건(4명), 1998년 10건(51명), 1999년 9건(39명), 2000년 9건(47명), 2001년 11건(86명) 등으로 나타난다. 1991년 9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서기장 고기준 목사의 초청으로 소망교회 관선희 목사가 방북한 것을 시작으로 교계의 북한방문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1997년까지 매년 한 두건에 불과하던 북한방문이 1998년 10건으로 늘어났으며 종교계의 북한방문은 한층 빈번해졌다. 김동완·김영주 목사(1997.9), 최창무 주교 등 8명(1998.5), 박종화·홍정길 목사 등 6명(1998.5), 신현균 목사 등 4명(1998.6), 문규현 신부 등 9명(1998.8), 은희곤 목사 등 8명(1998.9), 남북종교인평화모임(KCRP, 1998.11, 1999.12, 2000.3, 2001.3), 진요한 등 7명(2000.4, 2001.4), 은희곤 목사 등 6명(2000.7)의 방북이

30) 지원한 물품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쓸 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볼펜의 잉크, 아이들이 먹을 알사탕, 봉수교회에서 쓸 주보, 성가대 가운, 피아노, 전자울간, 성경과 찬송가, 스피커 시스템, 김일성대학에 기증한 기독교서적 등에서부터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구, 의약품, 의학서적, 평양제3병원, 평양 치과대학병원, 원산병원 및 청진병원 설립과 지원 등 다양하다.

진행되면서 종교계 교류를 주도하였다.

개신교의 경우, 1990년 7월부터는 남북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회의’(도쿄)가 시작된 후, 2차(1991.7, 도쿄), 3차(1992.10, 도쿄), 4차(1994.5, 도쿄), 5차(1996.6, 도쿄), 6차(1998.10, 오사카), 7차(2000.12, 후쿠오카)까지 이어져 남북한간 기독교 교류방안과 평화통일운동 및 선교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 동안 세계교회협의회나 미국, 일본, 독일교회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문제를 토론했다.

1991년 3월 ‘남북교회학자 심포지움(LA)에 이어 5월 ‘북미 기독교 학자회 제25차 연례대회’(미국 스톤리 포인트)가 개최되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1995.3, 교토), ‘미주 평화통일 회년대회’(1995.7, 신시네티),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 세미나’(1995.10, 뉴저지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의회’(1996.1, 마카오) 등을 통해 남북의 교계지도자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1996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10개 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와 북한 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1997년에는 개별차원에서 보다는 KNCC, KCRP 등 종교단체의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접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순수 종교목적 외에도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가 대북접촉의 계기가 되는 양상을 보였다. 접촉이 이루어진 주요사안으로는 ‘남·북·미 교회협의회’(1997.3, 뉴욕), ‘남북한 종교지도자 회의’(1997.5, 북경), ‘남북 천주교인 세미나’(1997.6, 북경) 등이다. 1998년에는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 협의회’(1998.3, 시드니)가 성사

되었고, 1999년에는 KNCC, 감리교 서부연회 등이 남북종교인 교류 협력방안 협의 목적 등으로 접촉하였고,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1999.4, 북경) 등에서 남북교회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으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예술 각 분야의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했으며,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만이 교류를 지속하였다. 2001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조선그리스도연맹과의 종교 교류 협의(2001.3),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협의(2001.3), 금강산 평화모임 협의(2001.3), 남북불교교류 협의(2001.4), 개천절 공동 행사 협의(2001.4), 남북 기독교 교류협의(2001.6) 등이 있었다.

2002년 6월에는 한민족복지재단 회원 297명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종교계의 대규모 교류가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또 남북나눔운동의 홍정길 회장과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일행 10명은 북한을 방문(2002.9)하여 남북교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남북교회의 교류는 제3국 공동회의 중심의 접촉위주에서 북한교회 설교, 연합예배, 교회재건 사업, 북한교회 실태조사 등 순수 선교목적의 방북이 증대하였다. 물론 선교목적의 방북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지만, 남북교회는 점차 선교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86년부터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교류를 추진하면서 남북교회협력의 장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들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북한선교를 위한 대북접촉을 시작하면서 보수진영 교회도 통일문제를 선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교회의 문제로 다루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보수진영 교회의 경우 북한선교나 인도적 차원

의 북한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백두산 통일기도회, 성경보내기 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단이 주축이 되고 일부 진보적 교단도 동참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도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와 나진·선봉지역에 예배소, 병원, 탁아소 건립을 논의하는 등 남북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의 기독교교류는 기존의 통일운동 차원에서부터 구체적인 대북지원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보수진영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한기총, 1990년)과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운동’(1991년, 1997.2 ‘한민족복지재단’으로 발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생산이 급감하고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하여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남한교회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구호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북한의 불교계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남한과 적극적인 교류를 전개하였다. 1997년 4월 북경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남북불교 실무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고 조계종은 조불련에 옥수수 1,380톤을 지원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가 서울 봉은사에서 발족했고 조계사에서는 북녘동포돕기 한생명 살리기 100일 범회가 시작되었다. 평불협 미주본부장 도안스님과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이 불교계의 남북교류합의서를 발표(1997.6)했고, 도안스님은 평불협 미주본부를 중심으로 북한에 국수공장을 건설해서 조불련에 기증하기로 합의(1997.9)하였다. 1997년 12월 29일에는 조불련과 평불협 미주본부간에 금강국수공장 설립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1998년 3월 조선불교도연맹의 심상진 서기장과 평불협 신법타 회장이 남북한 불교교류와 금강산 문화재 복원에 따른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 합의에 따라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인 신계사의 복원을 금강산국제그룹이 맡도록 했다. 사리원에 세워진 금강국수공장이 가동(1998.4)을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금강국수공장후원회도 결성(1998.4)되었다. 고 윤이상 선생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결성(1998.6)되었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협약서가 금강산국제그룹과 평불협간에 체결(1998.9)되었다. 또한 윤이상 통일음악제에 참가한 평불협 관계자들이 평양 광법사에서 개최된 윤이상 선생 천도제에도 참석(1998.11)했다.

조블련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진각종은 2002년 5월 서울에서 북한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블련의 신임이 두터운 이유는 종단 전체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작품 전시회 때 북한 작가가 그린 진각종 종조의 초상화가 전시된 것도 진각종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진각종은 북방포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불교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매년 2억원씩의 통일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 가운데 해마다 1억원씩을 대북 지원사업에 쓰고 있으며 북한에 컴퓨터 교육센터와 복지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³¹⁾

불교계 통일운동의 선구자로서 많은 업적과 성과를 이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은 LA에 미주본부를 두고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북한 불교계와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평불협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남북한 불교교류사에 큰 족적을 남길 만

31) 진각종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조. 김선관, “진각종 대북 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 『종교 대북협력의 현황과 과제』, 종교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4.25).

하다. 특히 1998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사리원의 금강국수공장은 매일 7,700여 그릇의 국수를 생산해서 성불사 인근의 유치원, 각급학교, 병원 등에 나눠주고 있다.³²⁾ 좋은 벗들과 JTS(Join Together Society)로 구성된 정토회도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좋은 벗들은 통일운동기구로서 북한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법회를 여는 등 대중적인 통일운동에 힘쓰고 있다. 반면에 JTS는 북한주민을 위한 구호기구로 나진 선봉지역에 100여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도 갖고 있다. 탁아소·유치원 지원 활동은 강진과 청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01년에는 북한 사찰의 단청을 돕기 위해 2천만원 상당의 재료와 도구를 보내기도 했다. JTS는 국내에서 벌이는 통일운동의 하나로 통일저금통을 만들어 배포하고 동전으로 대북 지원자금 1억원 만들기 운동을 펼쳤다. 현재 4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개별 불교종단이 할 수 없거나 개별 종단에 귀속되지 않아서 범불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사업을 권장한다. 아울러 북한 조불련의 남쪽 카운터파트로서 남북한 불교간의 공동법회를 협의하고 실행하는 등 연락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2002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하는 봉축기도문을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했고, 6·15 정상회담 두 돌을 기념하는 공동 발원문도 발표했다. 태고종 주도로 탕화에 사용되는 재료와 그림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2~3억원 규모의 악기를 윤이상음악연구원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에 남북불교교류위원회(조계종 사회부장이 당연직 위원장)가 있지만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2)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평불협 10돌 백서」 (서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2002) 참조.

북한은 천주교를 통해서도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천주교의 대북지원사업은 긴급구호사업, 농업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긴급구호사업은 식량(옥수수, 감자, 밀가루)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며, 농업지원사업은 각종 종자의 씨앗, 옥수수, 씨감자와 농업기자재, 비닐, 농약, 비료 등을 지원하고, 의료지원사업은 의료기자재와 의약품을 지원한다. 대북지원의 창구는 서울 대교구·한마음 한몸운동본부이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각 교구 및 수도회의 대북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명의로 별도 창구를 개설하였다.

대북지원사업 및 남북 천주교 교류는 각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톨릭 교구 가운데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은 서울대교구이다.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약 97억 7,100만원을 북한측에 지원하였다.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연도별로 북한에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4> 서울 대교구의 대북지원 내역

연도	중간기탁처 및 직접기탁처	품목	금액
1995	대한적십자사/뉴저지 한인교회	밀가루	2억 4,000만원
1996	중국교회/대한적십자사/뉴저지 한인교회	밀가루	2억 7,000만원
1997	대한적십자사/유진벨재단/뉴저지한인교회/불교운동본부(JTS)/중국 단동 천주교회/조선천주교인협회	밀가루, 감자, 옥수수, 탈곡기, 어린이영양식, 과자, 사탕, 양말, 옷 등	26억 8,900만원

연도	중간기탁처 및 직접기탁처	품목	금액
1998	중국단동천주교회/불교운동본부(JTS)/조선천주교인협회/홍콩 가리타스/유진벨 재단/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밀가루, 과자, 사탕, 양말, 어린이영양식, 옥수수, 비료, 탈지분유, 입쌀, 타올, 의약품, 비닐, 결핵약 등	32억 5,200만원
199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선아태위원회/중국 단동 천주교회/오렌지한인교회/조선카톨릭교협회	밀가루, 비료, 옥수수	9억 7,800만원
2000	조선카톨릭교협회/남양알로에(현재 주교려인 지원)	어린이 이불, 옷, 버스, 옥수수, 옷감, 양말, 벼	7억 2,900만원
2001	라선시 빵공장/평남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남포·평양·황해도 신천 국수공장	공장부지/설비부품, 모관용 비닐, 국수기계, 밀가루, 옥수수	9억 6,400만원
2002년 9월현재	조선카톨릭교회/한마음 한몸운동본부	빵 제조 원료, 모관용 비닐, 밀가루, 옥수수, 발전기	6억 4,700만원

춘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7년부터 북한에 농업지원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춘천교구는 유진벨 재단과의 협력 하에 결핵 및 간염예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의 감자재배 및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교구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동불사진 일대 12ha에 감자농장을 직영하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기신진 일대 30ha를 조선족에게 위탁경영하여 수확량을 북한에게 전달하였다. 대전교구는 1차(2001.9)로 327톤(직영수확 200톤, 구매 127톤)과 2차(2001.10)로 510톤(위탁경영 농

민에게서 구매)을 북한 외교부 뉴욕대표부에게 전달하였다. 총 지출액은 9,300만원이었는데, 한국에서 이 정도의 감자를 구입하였을 경우 예상지출액은 7억 1,000만원이었다.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양초, 분무기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나진·선봉지역 병원에 5억원을 지원(1997.4)하였으며, 개성시와 나진·선봉지역 어린이집 및 유아원에 1,300만원에 해당하는 쌀 60톤을 지원(2000.4)하고, 북한 장충성당의 냉난방시설 건설에 4,500만원을 지원(2001.1)하였다. 부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에 1,000만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지원(2001.7)하였다. 청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옥수수사업의 기금으로 7,200만원을 지원(1999.3~2000.11)하였으며, 간염예방용 차량 1대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비닐하우스 자재 및 농약, 비료 보조로 1,000만원을 지원(2001.11)하였다.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국제옥수수재단에 900만원을 지원(2001.3)하였다.

카톨릭 수도회별로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메리놀 외방 전교회 한국지부는 2000년에 결핵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구,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 옥수수 등을 지원하였다. 1995년 5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성베네딕 수도원의 김상진신부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김신부는 김영환(대구가톨릭대학 의학부총장), 안경렬 신부, 김석좌 신부 등과 함께 방북하여 라진에 2백 병상 규모의 병원건립문제를 협의했다. 김상진신부는 1997년에도 방북(5.28~30)하여 의료선교문제를 협의하고 라진병원 기공식에 참여했다. 2000년 4월에도 성베네딕 수도원의 신부와 수사 3명은 라진 지역 국제카톨릭 병원 건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중국 단둥을 통해서 면, 양초, 옥수수 등

7,7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조선기독교협회를 통해 4천 테이너 분량의 일용품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샬트르 성바로로 대구관구 수녀회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북한돕기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 여지수도회 장상연합회를 통해 북한에 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성 바오로 딸 수도회도 의류,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1998년 설립 10돌에 즈음하여 김승훈 신부를 비롯한 9명의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는 평양 장충성당에서 기념미사를 집전(1998.8)하기도 했다.

3. 종교인식의 변화

가. 일반적 인식

종교정책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은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1988년 4월 20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김정일은 1977년에 언급했던 종교에 관한 견해를 다시 인용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모든 장면이 종교와 미신은 비과학적이며 사람의 자주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사리정연하게 보여주는 각도에서 설정되고있습니다. 이 연극에서는 사람은 《하느님》이나 《귀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종자를 살리는 데로 이야기가 집중되고있습니다....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동작보다 대사를 많이 주며 무당과 전도부인, 중이 주먹싸움을 하는 것보다 말싸움을 하게 하여 종교와 미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발가놓게 하였습니다.³³⁾

김정일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종교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남반부에 나가서 종교와의 투쟁을 잘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에게 종교의 본질과 그 해독성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³⁴⁾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반종교 선전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지 종교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의 만행을 열거하면서 혐오감을 드러내곤 한다. 북한주민들이면 누구나 한 선교사의 만행에 대한 일화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김정일은 1995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이 생전에 자주 인용했던 선교사에 관한 이 내용을 재차 언급한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 와 있던 미국선교사가 조선소년이 떨어진 사과를 한알 주어 먹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³⁵⁾

북한주민들은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어

-
- 33)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07, 210.
 34)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52.
 35)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간의 북한당국의 선전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탈북자들이 목사나 신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든가, 예수나 부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종교는 “정신나가고,” “얼빠진”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평양시민들이나 북한의 안내원들 가운데도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천주교와 천도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부와 스님,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면서 종교 자체에 대해 무조건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모순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가 무조건 사람을 홀리고 마비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점은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하는 점에서 잘 드러났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 적대심을 갖는 것은 11년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종교는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식민지적 침략의 침병 역할을 한다고 하는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갖도록 교육받는다. 북한은 기독교를 “철천지 원썩”인 미제의 스파이라고 가르친다. 늘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놓치지 않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침병으로 보내어 그 곳 주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두번째 이유는 과거 종교인들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은 대체로 50, 60대 주민들이다. 이들은 해방직후나 전쟁후 많은 종교인들이 순교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세대이다. 현재 북한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하 주민들은 철저하게 출신성분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운명이 달라지는 북한의 사회여건상 종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사람들에게 환각을 갖게 하는 미신으로서 ‘주체적 인간’이 믿을 바 못되는 몫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점(占)을 본다던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북한 종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김일성의 종교관은 김일성 자신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북한의 종교관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는 그들이 출판한 백과전서에 수록된 종교에 관한 해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로동신문에 나타난 주민들의 종교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나 세계 가톨릭 국제회의 웨슨 서기장 같은 고명한 성직자들이 이북 방문 소감에서 이북에 한하여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면서 성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는가 하면 주님이 가르친 그 이상사회가 이북과 같은 사회라며 “에덴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낙원이 지구 위에 피어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라고 격찬해 마지 않았다.(1996.2.18)

11세기 말~13세기 사이에 식민주의자들의 야만성과 포악성을 역사에 새긴 십자군 원정은 성지 예루살렘을 해방한다는 기만적인 종

교적 구호 밑에 감행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지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과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종교의 자유화이며, 미국이 들고 나온 종교의 자유화는 저들의 지배적 야망을 세계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이다.(1998.3.14)

김일성은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1999.3.16)

선교사들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해치려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등의 각종 기만적인 종교적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지몽매하게 만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1999.3.16)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김정일을 ‘한울님’(하느님)으로 칭송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유미영(최덕신 부인)은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아버지 수령님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어 모신 현시대의 한울님이시다”고 표현했다.³⁶⁾ 노동신문에서도 김정일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³⁷⁾ 이러한 현상들을 놓고 볼 때, 아직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보편적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36) 『조선중앙방송』, 1995 10.6.

37) 『로동신문』, 1999.7.18.

북한은 종교인들의 애국적 투쟁사를 강조하며 종교인들이 조국통일과 연방제를 지지하도록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신앙인이기 전에 먼저 민족의 한 성원이며...따라서 종교인들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나서서 그 실현을 위해 주동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국통일성업에서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다른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연방제통일의 지지자로 나서서 그의 적극적인 추진자로 되는 것이다.³⁸⁾

북한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다. 1990년 4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687명) 가운데 종교단체 대표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섭과 ‘조선불교로연맹’ 위원장 박태호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 역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이들은 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인들로서 신앙적 의미의 종교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

나. 인식변화의 영역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편협한 것으로 비판하며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새로운 종교이해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종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이러한 주장이 아직 일반주민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가 공

38) 홍경란, “조국통일과 종교인의 자세,” 『조선사회민주당』 1993.3. pp. 56~57.

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담론의 공간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과거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존의 종교인식이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협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종교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부모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이러한 변화된 종교지형 속에서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종교의 발생근원을 거대한 자연의 파괴력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즉 고대에는 자연이 주는 피해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해 보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태동시켰던 측면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활동을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착취사회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즉 자연과 사회의 압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종교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종교를 미신이라며 무조건 매도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주로 종교교리가 굴종과 순종의 교리를 강조하며 인민들 속에서 금욕주의와 현실도피사상을 주입시키

는 반동적 교리로만 평가하였다. 이러한 교리가 종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교리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기독교 교리에서 정의와 인도주의, 사랑과 화목이라든가, 불교의 권선징악과 평등의 교리,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평등의 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을 결부시킨 교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활동 자체도 변화를 반영하여 자주적 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에서 1992년 4월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은 그보다 10년 전인 1981년에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에 비해 특히 종교관련 용어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나타내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관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1992년에 출판된 『조선말대사전』은 북한이 7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만들어낸 대규모 사전으로 모두 33만여 개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북한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고 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조선말대사전』은 해방 후 출판된 조선말사전들을 토대로 해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약 1백년 동안의 각종 어휘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발굴·수록했다고 하며, 이 『조선말대사전』의 출판은 조선어의 주체적 발전, 주민들의 언어생활 개선, 당원·근로자들에 대한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육, 과학과 교육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이룩한 것으로 강조된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또한 종교와 미신을 차별화하는 노력도 엿보인다. 1981년에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종교를 “이른바 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조직”이라고 정의했으나, 1992년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은 이와 달리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

선말대사전』에는 그 이전의 사전에서는 빼놓지 않던 표현들, 이를테면 “억압, 착취하는 도구,”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 등의 부정적 평가가 삭제되고, “신이나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를 믿고 따르며,” “원시종교로부터 시작하여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수많은 종교와 크고 작은 류파들이 있다” 등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큰 의의를 지니는 『조선말대사전』에서의 종교관련 용어 해석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며 북한의 종교관이 현실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는 종전의 『조선말사전』(1981년 발행)이나 『철학사전』(1985년 발행) 등에서 볼 수 있던 종교에 관한 부정적 평가나 비판이 거의 다 삭제되었으며, 그 대신 종교의 전개과정과 그 사상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종교를 일종의 미신이며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간주하는 데서부터 출발했고 이런 태도는 1980년대에 간행된 사전에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은 종교와 미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를 구별해 종교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미신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와 서술을 그대로 지속해 차별성을 부여하는 등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모습은 1980년대 말 이후 종교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객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조선말대사전이 발간되기 이전인 1989년에 발행된 소책자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되새기며』에도 반영되어 있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 의장을 맡고 있던 허정숙이 쓴 이

책에는 “한 여성교인의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어”라는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정숙은 안창호의 여동생 안신호가 김일성의 운정에 감탄해 건국사업에 몸바쳐 일하였고 김일성을 위해 헌신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는 그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가 지니고 있는 애국심의 깊이와 건국사업에 어떻게 나서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멀리하며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김일성의 어록도 인용되어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종교현상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종교교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는 신학에 대해 이를 관념론적 세계관에 기초해 종교적 교리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비과학적 학문으로 설명했으나, 이후 순수하게 “신에 관한 종교적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학적 용어 해석에 있어서도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설명을 삭제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종교교육이란 항목에 대해 그 이전에는 “종교의 교리를 불어넣은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교육”이라고 서술했으나, 이를 “종교의 교리와 계율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로잡아 놓고 있다.

불교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불교가 반동적이며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한다고 극히 부정적인 설명을 하면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문화와 과학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설명과 비판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 불교를 “동방에 퍼져있는 세계 3대종교의 하나”로 설명하며 불교의 기원과 전파 및 중심사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북한의 철학서나 역사서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기존에는 기독교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이용되었고 남한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등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그러한 비난이 삭제되고 사실적인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나타난 기독교 관계 용어 설명의 변화를 열거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조선말대사전』의 기독교 관계 용어설명

용어	1981년도 판	1992년도 판
교회	반동통치계급이 정치적 비호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여 퍼뜨리는 거점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예배당
구세주	(이른바 인류를 구원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과 그 대변자들이 근로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무디게 하여 저들에게 순종하게 만들 목적 밑에 꾸며낸 허황된 존재	세상을 구제하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이르는 말
구약성서	예수가 나기 전의 기사를 모았다고 하는 예수교의 이른바 성서. 깨지 못한 사람들을 끌기 위한 비과학적인 허황한 거짓으로 엮여져 있다	하느님의 언약을 담은 기록한 글이라는 뜻으로 예수 출생 이전의 천지창조설과 인류의 번성력사,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언약을 기록하였다는 책이다
복음서	구세주의 은혜나 구원에 대하여 쓴 책. 사람들을 속이며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리용된다	기독교에서 구세주의 은혜나 구원에 대하여 썼다고하는 책
선교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예수교를 선전하고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종교의 탈을 쓴 침략의 앞잡이	기독교를 보급 선전할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사람

용어	1981년도 판	1992년도 판
신교	16세기에 상층 부르주아지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교파. 자본가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며 남의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에 적극 복무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를 이르는 말. 16세기 종교개혁 때 새로운 교리와 계율을 주장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의 교파이다
신부	종교교리를 전문적으로 선전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자. 미제는 신부들을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착취와 략탈, 침략과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리용하고 있다	교리를 전문적으로 선전하는 교직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 교구의 말단 조직의 책임자이다
십자가	예수쟁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른바 위선과 박애의 위장물로 삼는 +자 모양의 표 막대기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손에 들거나 일상적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표 모양의 표
장로	예수교의 한 갈래인 장로교회의 직책의 하나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복무한다	기독교의 한 갈래인 장로교에서 목사와 집사 사이의 종교직책의 하나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종교	신, 하느님 등과 같은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의지해서 살게 하며 이른바 저승에서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그러한 조직.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다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 럽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

1998년 4월에 발행된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에는 기독교와 선교사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트의 교리를 설교하는 종교. 예수교 또는 그리스트라고도 한다. 기원전 1세기의 유대교를 바탕으로 하고 희랍, 로마의 철학과 동방종교의 영향 밑에 발생하였다. 392년 로마국교로 되고 395년 로마제국의 분렬과 로마천주교(카톨릭교)와 희랍정교의 두파로 갈라졌다. 16세기 초에 와서는 다시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교(신교)가 갈라져 나왔다. 그리하여 기독교에는 3개의 기본류파와 그로부터 갈라져나온 각 종교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는 18세기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 속에는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일생을 반일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으며 지금 남조선의 기독교 신자를 비롯한 애국적인 종교계 인사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다.³⁹⁾

선교사: 기독교를 선전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지역에 파견되는 사람. 선교사의 파견은 자본주의 발생시기에 가장 성행하였으며 제국주의시기에 와서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초부터 외국선교사들이 들어왔다. 미국 침략자들은 1884년부터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으며 그들을 침략의 길잡이로 삼았다. 선교사들은 파견된 지역들에서 전도사업을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교회당과 학교, 병원 등을 세우고 운영하였다. 평양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서 숭실중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내세운 교육목적과는 관계없이 후날 독립운동선상에서 큰 활약을 한 이름있는 애국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우리나라 반일 민족

3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 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p. 193~194.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송실중학교에 다니시면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획득하시였으며 독서회와 일심친목회를 조직하시고 학생들의 여러가지 활동과 투쟁을 조직하시였다.⁴⁰⁾

유교에 대해서는 봉건유교사상과 유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수적이며 반동적이고 봉건통치체제를 위해 이용된 사상 혹은 교리라는 비판적 평가를 가하던 것과 달리 조선말대사전은 유교에 대해 어떤 부정적 표현도 배제한 채 “중국 봉건사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존속한 정치·윤리 학설”로 개념규정을 하고 유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도 사회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만 할 뿐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은 현대조선말사전에 수록된 13만여 어휘보다 20만개의 어휘가 더 담겨져 있는데 종교용어의 경우도 그만큼 더 풍부하고 많은 어휘가 수록돼 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어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불교에서 소승불교와 대비되는 대승불교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려있고, 조계종파 같은 우리 나라 종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용어에서 새롭게 추가된 어휘로는 ‘극락, 열반, 룬회설, 인과응보설, 공(空)’등이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에도 ‘가톨릭, 회람정교회, 교황, 추기경’등의 어휘가 새로이 소개되고 있다.

종교 경전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던 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는 삭제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시편 등 구약성서와 마태복음, 요한복음, 골로새서, 묵시록 등 신약성서 모두 6권을 선정

4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위의 책, p. 43.

해 국내 기독교 사전의 설명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모세오경, 예언서, 공관복음서 등 경전의 분류명칭까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점은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장경,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등을 다루고 있고, 유교의 경우에도 사단(四端), 사서오경 가운데 주역 등을 선정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일본종교인 천리교, 인도종교인 힌두교와 브라만교, 그리고 중국의 도교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알라신, 코란경, 마호메트에 대해서도 사실 위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말대사전」은 그 이전과 달리 거의 모든 종교와 종교교리·경전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종교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종교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인식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곧바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를 놓고 볼 때 개인의 경우와 달리 정책적 변화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식변화로 구체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의 종교에 관한 인식은 40여 년간 부정적 평가와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일정한 한계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종교관 변화를 뒷받침하는 전향적 정책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의 종교가 자생력을 갖는 하부구조의 복원이라는 형태로 발전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은 식량난 극복과 대외경제개방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종교를

하나의 창구로 이용하려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불모지로 변한 종교를 되살릴 교직자의 양성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과정은 북한에서 종교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양성된 교직자에 의존하는 국가교회의 형태를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가급적 외부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과시하기 위하여 종교 관련 용어를 손질하고 종교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외형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의 굴레가 벗겨지고 신앙의 자유가 공인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도감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이 『조선말대사전』을 발간하면서 이처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종교관련 용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헌법을 수정하면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거나 종교시설을 세울 수 있음을 명시하고 오해받을만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도 획기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 허용된 제한된 변화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의 순수한 종교활동의 공간을 확대시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탈북자 지원을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 문익환 목사, 문규현신부, 임수경(천주교인) 등의 활동을 통해 종교인들의 이미지가 통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고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활발한 통일활동은 북한주민들에게 종교인들에 대해 전향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자극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종교인들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예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종교인들의 역할은 항상 민족통일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에 게재된 종교인들의 역할에서도 종교인들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국통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¹⁾ 따라서 북한이 기대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는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통일사업을 위해 주민들을 교육하고 교화하는 사람들이다.

김정일도 종교인들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1998년 4월,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낸 이른바 ‘4.18서한’에서 김정일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⁴²⁾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북한의 인도주의 대북지원 사업에 종교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대북지원과 통일협력사업을 통한 종교의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탈북자들을 통한 종교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중국 옌벤지역에서 탈북자들에게 교회에 가면 식량과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교회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41) 홍경란, “조국통일과 종교인의 자세,” 『조선사회민주당』 (1993.3), pp. 56~57.

42)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21.

IV. 각 종교별 변화실태

1. 개신교

가. 조직현황

북한의 개신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같이 예배당을 갖춘 교회와 예배당이 없이 신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소가 그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통제하에 있으나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신자들과 소위 ‘지하교회’로 일컫는 비공개 신자집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수교회는 초기에 이성봉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연로하여 장승복목사로 교체되었으나, 2002년 9월 장승복목사가 부목사로 물러나고 손효순목사가 담임목사로 임명되었다. 봉수교회는 1988년 8월에 완공했고 350명(여성 70%)의 신도가 모인다고 한다. 개신교 초교파를 지향한다고 하며 예배시간은 오전 10~11시이다. 어린이들과 청년층의 신자들이 없이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년층, 노년층이다. 봉수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박완신은 봉수교회의 직분자 구성에 대해 장로9명, 권사 6명, 집사 16명으로, 백중현은 장로 8명, 권사 14명, 집사 5명 등으로 밝히고 있다.⁴³⁾

칠골교회는 유병철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봉수교회 부목사였던 박춘근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현재는 황민우목사가 교회를 맡고 있다. 교인은

43) 박완신, 『평양에서 본 북한사회』, (서울: 도서출판담개, 2001), p. 238;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 1998), p. 29.

90여명으로 장로 3인, 권사 1인 모두 여성이며, 3명의 집사 가운데 1명은 남자, 2명은 여자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칠골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황민우 목사는 언행에 있어 매우 신실한 목회자로 평가되고 있다.

<표 6> 북한의 교회

교회명	위치	목회자 및 직분자	교인수
봉수교회	평양시 만경대구역	담임목사: 손효순 원로목사: 리성봉(리태균) 부목사: 장승복 전도사: 리성숙, 김용거, 김영순 장로 8명: 리희병, 오삼연, 심종문 등 권사 14명: 박정렬 등, 집사 5명: 김영숙, 민영화 등	300여명 부인 전도회 (회장박정렬권사) 성가대 12명: 정옥경 등
칠골교회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동	담임목사: 황민우 부목사: 없음 장로: 3인(여자) 권사: 1인(여자) 집사: 3인(남자1, 여자2)	90여명 성가대(10명): 유정하(대장), 최순애 등
가정예배소	각 지역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에 각각 30여 처소, 평안남도 60여 처소, 평북,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각 40여 처소	520여개(처소당 10~15인)

가정예배소는 북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북한측에서는 북한에 약 520여 곳의 예배처소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평양과 남포, 개성에 각각 30개소, 평안남북도 각 60개소, 그 외의 도에 40개소씩 존재하고, 양강도와 자강도는 산간지역이어서 가정교회가 아직 없다고 한다. 이들 가정예배소는 장로나 집사 등 평신도들에 의해 운영된다. 전쟁 이후 2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모들이나 친지들로부터 기독교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1만 2천 명이 있는데, 이들 중 약 6천명이 10여명 정도로 구성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 대해 ‘진짜 신자’나 ‘가짜 신자’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연맹과 당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선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주로 선대 신앙인들의 후손들로 가족·친지관계를 통해 기독교를 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다. 50여 년 동안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설교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지식이나 신앙수준은 보잘 것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의 남한 교회 신자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가짜 신자’로 치부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북한에서 생활하는 2대 혹은 3대 신앙인들은 가족들로부터 구두로 신앙을 전수 받고 힘겹게 그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기준에서 순수한 종교적인 활동만을 하는지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당적 관리를 받으며 생활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가짜로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북한에는 해방 이후 신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신앙인의 뿌리가 남아 있다. 월남한 수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북쪽에 남겨놓고 온 가족들과 그곳에서 순교한 신앙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그 뿌리이다. 이들은 50년 가까이 신앙적 진공상태에 있었으나 탈냉전 10여 년간 외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앙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북한당국이 주민들 사이에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즉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득불 신앙활동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거주제한 등

비당원보다 공민권상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다.

2002년 7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남북기독교자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목사는 북한의 기독교인 수가 2002년 6월말 현재 13,043명이라고 밝혔다.⁴⁴⁾ 북한은 511개의 교회가 현존하고 있고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04년 제15차 연맹회의까지 2만 명의 신자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12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측에 따르면 기독교인 수는 12,300명이고, 등록된 가정예배소는 513개라고 한다.

공식적인 교회 이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신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약 100여 개의 지하교회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해방당시 북한의 기독교신자가 30만 명 이상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교회는 공식교회이건 비공식교회이건 간에 대부분 과거 신앙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해방당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 1세대는 대부분 사망했거나 고령이 되었다. 따라서 지하교회 교인으로 활동하거나 잠재적 교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실한 신앙인을 부모로 둔 사람들이다.

이러한 잠재적 신앙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많다. 1995년 4월 1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지하교회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속천군의 한 농촌마을. 지난해(1994년) 12월 24일 저녁 5명의 북한주민이 남의 눈을 피해 평범한 농가에 한둘씩 모였다. 한 사람의 손짓을 눈짓 삼아 이들은 입술을 달싹달싹 뱉기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찬송가 ‘실로암 못 가에 흰 백합’이었다. 찬송가를 숨죽

44) 『크리스찬 뉴스위크』, 2002.10.19.

여 부른 이들은 품속에서 꺼낸 조그마한 수첩을 보며 성경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 두 손을 모으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이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20~30분 남짓. 잠시 후 이들은 처음 모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20년간 빠짐없이 드러 온 성탄절 예배를 올해도 무사히 드린 것이다.⁴⁵⁾

북한사회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혹은 많은 수가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종교활동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인 ‘○○○선교회’는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북한에는 현재 점조직 형태로 3만명의 지하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이들 가운데 인민군 장성과 공산당 간부들도 끼여 있습니다. 물론 조직적인 집회나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대 17명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좁은 다락이나 논두렁에서 2~3명씩 모여 입술만 달싹달싹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거나 김일성 찬양 노랫가락에 찬송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소원은 제 곡조에 맞춰 찬송가를 한 번 속 시원히 불러보는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해방 전부터 믿던 60세 이상 나이 많은 분들과 1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⁴⁶⁾

북한의 시골지역까지 방문하는 조선족 보따리 장사꾼들이나 연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 의하면 외딴 집이나 산속, 논두렁 아래 등에

45) 『중앙일보』, 1995.4.1;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p. 184에서 재인용.

46) 『중앙일보』, 1995.4.1; 백중현, 위의 책, pp. 185~186.

서 서너 명씩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탈북 귀순자 가운데 이러한 가정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거나 비밀모임을 통해 신앙을 간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잠재신앙인 가운데 당대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김현희의 가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김현희의 어머니는 개성의 기독교계통 학교인 ‘호수돈여고’를 나왔다고 하는데, 김현희는 인민학교 시절 소아마비에 걸렸다가 옆집 손님으로 온 침구사의 도움으로 병이 나았을 때 어머니가 무심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했던 말을 회상했다.⁴⁷⁾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잠재적 기독교 인구를 어떻게 추산해볼 수 있을까? 해방당시 3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전쟁 직전 20만이 남았다. 전쟁 이후 그 절반인 10만명으로 감소했고 그 이후 반종교선전 등으로 절반으로 축소되었다고 가정하면 약 5만명이 신앙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 신앙1세대 가운데 1/4 정도가 가정을 통해 신앙을 전수했고, 현재 신앙1세대가 20% 생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기독교인구는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1만 2천 명과 일치한다. 북한당국은 연맹에 등록하지 않은 6천 명의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지하교회와 연맹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등록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조동진 목사는 전쟁 이전 북한 기독교인구를 30~35만명으로 보고

47)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권 (서울: 고려원, 1991), p. 318.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자 5만명과 월남자 5만명을 제외하면 적어도 20만명 내지 25만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까지 생존했다고 가정하면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잔류신도와 그 자녀수를 7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⁴⁸⁾ 물론 북한의 기독교 억압정책으로 인해 가족관계 이외의 방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독교인 수는 75만명 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 전쟁당시 30세 이상의 인구층은 현재 80세가 넘어 이미 사망했거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앙을 버렸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75만명의 인구는 가족관계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신빙성 있게 판단할 근거는 없다.

북한의 기독교 인구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하나로 UPI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 권력층을 포함해 50만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⁹⁾ 전세계의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을 위한 국제선교단체인 순교자의소리(VOM)와 국제기독교관심(ICC)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설립하면서 북한 내에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권력층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UPI는 또 이들 지하교회 성도는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이미 신앙을 갖고 있던 노년층과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어린 청소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UPI는 미국의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 내에 있는 10만명의 기독교인이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용돼 의복과 음식 등을 박탈당한 채 가혹한

48) 조동진, “역사적 전환기의 전방위 선교로서의 대북활동,” 『2001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강의자료』, p. 6.

49) 『국민일보』, 2002.3.5.

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가정예배소는 미약하나마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에서 90년대 초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린 이후에 잠재기독교인들이 가정예배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보장된 것이다. 해방 이후 기독교인 후손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협력하면서도 부모들을 통해 전수 받은 기독교신앙을 지켜왔다. 80년대 후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매도한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독교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해석을 내린다. 그 이후로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침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더 이상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합작과 연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접근한다.

따라서 이러한 열린 공간을 배경으로 북한의 종교인들과 학자들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를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체적’ 해석을 내린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인민의 아편’이었던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특정시기에 인민을 착취하고 지배계급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생성초기에 외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양식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에 이를수록 일반민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북한당국의 변화된 종교정책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배척하고 있으며 ‘인민의 아편’으로 생각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해 버린다. 심지어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원들도 통행검문에서 종교인이라고 설명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 받을 정도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해석의 지형

을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반동분자로 낙인찍는다거나 비판하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잠재적 기독교인들은 가정예배소에 편입되거나 새롭게 가정예배소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북한의 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속해 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직 내에서 활동한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산하기관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위원장인 강양욱이 6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이 세계기독교협의회(WCC)에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북한의 다른 종교에 비해 일찍이 해외에 그 존재를 알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대외선전적 차원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기독교가 종교 본연의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평양에 북한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88년 봉수교회가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99년 2월 조선기독교연맹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도 조선카톨릭협회(1999.6)로 개칭되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그리스도교, 카톨릭과 같은 외래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불교도연맹, 카톨릭협회, 천도교중앙위원회와 더불어 종교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북한의 종교인수에 대해 기독교신자 약 1만명, 불교신자 약 1만명, 천도교신자 약 1만5천명, 천주교신자 3~4천명 등 총 3만8천여명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종교인구는 전체의 0.2%에 지나지 않는 미약한 형편이며 기독교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90년대 초에는 목사 20명, 교회책임지도원(전도사) 130여명 정도가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목사 30명, 교직자 300명, 신자 1만2천300명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된다.⁵⁰⁾ 중앙조직으로는 총회가 있고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영섭), 서기(서기장: 오경우)가 있으며, 산하에 국제부(부장: 이정로), 선전부(부장: 리춘구), 조직부(부장: 오경우), 경리부(부장: 홍광일) 등 4개 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모두 50개 도시에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평양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평양신학원은 북한교회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3년제 신학교육기관이다.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개설하여 신학도 강의되고 있다. 평양신학원은 매해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이들이 졸업한 후에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신학교를 운영한다. 2000년에 5년제로 개편하여 제7기 학생을 모집, 운영중이며 현재 12명의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교회의 문제는 과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과 일반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는 학습을 통해 반종교활동을 취하고 있고, 종교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간섭,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과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통제구역에 거주하고 있

50) 자세한 내용은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을 참조.

는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88년 요덕수용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70세정도의 할머니와 아들·딸 등 일가족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1990년대초 회령수용소 내에는 과거 종교인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당시 58세 가량의 할머니는 천주교인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낮다. 그러나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1987년 방북했던 일본교회협 대표단의 방북기를 보면, “신도들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원도 있고, 시나 도위원회 선출된 사람도 9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교회 목사들 중에는 사회민주당 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각 시·도 인민위원회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꽤 포함되어 있다. 대법관 출신이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강영섭 위원장, 최고 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을 지낸 고기준 목사, 평양시 체지도 위원과 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를 지낸 김성률 전 위원장을 비롯, 김득룡 목사, 고헌진 목사, 임현달 목사 등이 사회단체 직함을 가진 대표적 인물들이다. 강영섭은 고 강양옥목사의 아들로 대법원판사, 말타 대사, 루마니아 대사(1969~73), 최고인민회의 9기 대의원(1990.4),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위원(1990.5), 조평연합 부의장, 조평통 위원, 조국전선 위원(1991.1),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994.7)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앙인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사이에 못했던 작업을 추가로 해야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안고 교회에 출석한다. 북한사회의 일반주민들이 갖고 있는 반기독교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다. 목사는 북한에서 사회적으로

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직장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목사가 되려면 평양신학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해야 하는데, 신학공부는 전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히 공부해야 한다. 신학원을 졸업하면 가정교회에서 상당 기간 봉사해야 한다. 목사의 생활패턴을 보면 연맹에서 일하는 경우와 도·시의 지방인민위원회에 소속되는 경우, 다른 직업에서 주수입을 갖고 목사일을 하는 경우, 고령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연맹에서 일하는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전문성직자의 경우, 사회적 평가에 비하면 일반 노동자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월급을 받고, 특히 해외방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양신학원을 졸업하고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들도 많다. 대략 이들은 20~30여 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목사를 배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조그련은 강영섭 위원장이 목사안수를 함부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평양신학원을 일찍 졸업한 인물 가운데는 김용거(1982년, 전도사)와 변소정(1982년, 전도사), 박창선(1985년, 전도사), 조귀남(1988년, 전도사) 등이 있다. 최근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목사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들이 목사안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래에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최옥희, 김혜숙 전도사, 김근영(칠골교회 목사 역임), 리성숙 전도사(7기, 1990~1992년) 등이 있다. 김혜숙 전도사는 국제회의 때마다 통역으로 참석해 외부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혜숙전도사는 1986년 1

차 글리온회의 때까지만 해도 “나는 교인이 아니다”고 거듭 밝혀 왔으나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감동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1987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최옥희 전도사와 김근영 전도사의 경우, 1990년 열린 북미기독교학자회의에 신학생으로 소개되었다. 최옥희 전도사는 그간 국제회의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활달한 성격과 뛰어난 발표력, 굳은 소신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최전도사는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 성경암송과 기도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김철훈, 송진사, 백근삼, 김성호, 안경호, 황해운, 박기찬, 백봉일, 조홍수, 김영일 전도사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중에 송진사 전도사는 96년 1월 마카오회의에, 김철훈 전도사는 이보다 몇 개월 뒤인 96년 5월 동경회의에 '조직부 책임지도원'이란 명함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다.

나. 신앙형태와 내용

북한교회의 신학성향은 북한의 종교정책에서 간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다. 박승덕에 따르면 종교에는 나쁜 점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김정일의 긍정적인 승인 아래 이제 주체사상은,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으로 보았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관’을 내세운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의 평가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의 종교관은 종교를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단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 위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다시말해 마르크스주의는 ‘객관적인 세계를 형상적으로 반영한 의식형태,’ ‘전도된 세계관,’ ‘왜곡된 착취사회의 피상적 반영’을 종교의 본질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박승덕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종교가 객관적 세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주체사상은 종교를 사람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란 객관적 세계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성적 요구’,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해 나왔다”는 것이 그 본질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종교관의 변화는 종교정책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고립된 국제관계를 유화적으로 풀어나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변화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변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북한종교단체와의 교류가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승덕은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강의에서 기독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기존의 맑스주의에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편향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주체사상에서는 기독교를 “압박받고 핍박받는 사회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요구를 반영한 의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본질적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능동적인 종교이며,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목적과 동기, 사명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민족을 위한 종교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내용에 있어서도 맑스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매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내세와 현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본다. 맑스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배계급에 복무하며 인민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⁵¹⁾

탈냉전기 변화된 종교정책에 근거하여 종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북한에서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들의 활동을 다른 기관보다 중시하는 조선사회민주당은 당기관지를 통해 종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독려한다. 이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종교인식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협한 것이었음을 비판한다.⁵²⁾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발생근원과 종교교리, 종교기구와 단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종교의 발생근원을 거대한 자연의 파괴력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즉 고대에는 자연이 주는 피해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해 보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태동시켰던 측면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활동을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착취사회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즉 자연과 사회의 압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종교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종교를 미신이라며 무조건 매도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주로 종교교리가 굴종과 순종의 교리를 강조하며 인민들 속에서 금욕주의와 현실도피사상을 주입시키

51) 박승덕, “주체사상과 기독교” 강연(1991년, 뉴욕).

52) 하용길,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조선사회민주당』 (1993.2), pp. 50~52.

는 반동적 교리로만 평가하였다. 이러한 교리가 종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교리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기독교 교리에서 정의와 인도주의, 사랑과 화목이라든가, 불교의 권선징악과 평등의 교리,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평등의 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을 결부시킨 교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활동 자체도 변화를 반영하여 자주적 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한교회의 신학성향은 북한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의 설교에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북한교회의 예배와 설교내용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겉으로 보아 가장 유사한 것은 예배순서와 성경·찬송가의 사용일 것이다. 예배순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예배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묵도에 이어 찬송과 기도, 찬송, 성경봉독, 성가대찬양, 설교, 찬송(특송)과 헌금, 축도 등으로 이어지는 예배순서는 거의 비슷하다. 잠자리채 모양의 헌금대를 사용하는 것도 해방 전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찬송가와 성경책의 사용도 흡사하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를 1983년, 1984년 각각 1만부 출간하였고, 신구약합본인 성경전서와 찬송가를 각각 2만부 발행하여 평양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에서 예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남한 및 해외 교직자들이 북한방문 기념용으로 가져와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0년 발행 『성경전서』는 총589쪽의 신·구약 합본으로 공동성경의 표기법에 따라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였고, ‘예수께서’라는 높임말 대신에 ‘예수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식의 문화어 표기법을 채택한 차이를 보인다. 또 모두 401곡을 수록한 북한 『찬송가』는 남

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작사가, 작곡가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찬송가」의 부록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담고 있으나 교독문은 없다. 북한 「찬송가」는 「성경전서」와 달리 2쪽에 "이 찬송가책은 193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발행한 신편찬송가를 조선 문화어의 표기법에 기초하여 다시 편집한 것"이라는 편집위원회의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교회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이 어떠한가를 그들의 설교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교내용은 ① 애국애족 ② 윤리도덕적 교훈 등의 설교가 중심을 차지한다. 북한교회를 대표하는 봉수교회 이성봉 목사의 설교를 살펴보면 설교내용은 좀더 명확해 진다. 1991년 '북미주기독학자 대회' 참석차 미국에 온 이성봉 목사는 부르클린 한인교회에서 "은유와 겸손의 미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또 무원칙한 사랑과 타협은 안된다고 강조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설교, "애국애족은 그리스도의 본분"(1990년 북경, 북미주기독학자회 폐회설교), "나라사랑하는 성도가 되자"⁵³⁾(2001.8.16, 평양) 등의 설교는 기독교인의 애국심과 윤리·도덕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박춘근목사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약의 뿌리"라는 설교도 윤리생활을 다루는 내용이다.

북한의 구세대 목회자들이 주로 애국애족과 윤리도덕의 측면에서 설교를 한다면 신세대 목회자들은 통일신학의 입장을 훨씬 발전시킨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 새로운 세대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로서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 북한의 교회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윤리적 교훈을 강조한다거나 기독교를 애국애족의 종교로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이다. 그렇지만 종교정책적 측면이나 신학적 해

53) 박완신, 『평양에서 본 북한사회』, p. 24.

석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불교

가. 조직현황

북한의 불교를 지도하고 있는 기관은 조선불교도연맹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 1945년 12월 26일 북조선불교도연맹과 북조선불교연합회가 연합하여 북조선불교도총연맹으로 창립되었으나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다. 1972년 정식으로 명칭이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당시 연맹원 수는 37만명을 넘었으나, 현재 맹원수는 약 1만명이다. 현재 연맹위원장은 박태호(법명 학립)가 맡고 있으며, 박위원장은 조선종교인협회의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평양시 용화사에 조불련중앙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 시·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현재 시·도위원회의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사찰수가 60여개, 승려수는 300여명, 신도수는 1만여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불교신도들은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에 가입된 연맹원들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불교신도를 1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석탄일과 같은 큰 기념일에는 절을 찾는 이들이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⁵⁴⁾ 해방 당시 북한지역에 400여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대부분 유실되고 60여개가 남아 있다. 승려는 해방당시 1,600명이었으나 3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스님들은 20~30대의 젊은 스님은 거의 없고 해방 이전부터 승려생활을 해 온 노장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9년에는 양강도 삼수군 중흥사에 북한 최초의 승려교육기관인

54)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서울: 민족사, 2000), p. 97.

불교학원이 건립되었으며, 1991년 2월 평양에 광법사가 복원되면서 평양으로 이전되었다. 원장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맡고 있다. 불교학원은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약 3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1기생으로 졸업한 승려들이 1996년부터 전국의 사찰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선배 승려들이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과목에 따라서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기도 한다고 한다. 1989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가 신설되어 불교와 기독교 등 동서양의 종교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60여개의 사찰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부가 남았거나 전소된 것을 ‘국보유적지’로 복원한 것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사찰은 승려가 관리하는 조선불교도연맹의 소속사찰(전체의 1/3)과 유물 문화총국에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로 구별되어 있다.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에는 승려가 없고 정부에서 배치한 사찰관리인만 상주한다. 1991년 2월 복원된 대성산 광법사는 서기 392년에 창건되었으며, 새로 복원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동명왕릉을 옮겨올 때 창건된 정릉사는 1993년 5월에 복원되었다. 평양시 외곽산에 위치한 안국사는 서기 543년에 창건된 것으로 한국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평양시 내에는 모란봉 기슭 개선청년공원 내에 용화사가 있는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오는 불교신자들은 주로 이곳을 방문한다. 2002년에는 김정일이 국보급 유적으로 지정된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2010년까지 6·25 이전 모습으로 복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가장 큰 사찰은 묘향산 보현사로 주요 방북코스로 지정되어 있다. 보현사 팔만대장경보존고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과 같

은 북한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데, 1988년 5월 한글로 번역을 완료하였다. 그 해제본 전 25권을 이후 1992년 4월에 다시 전 15권으로 출판하였으며, 남한에도 그 복제본이 보급되어 있다. 금강산에는 한국전쟁 이전에 108개소 사암이 있었으나, 내금강산에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불지암 등 4개 사암만이 남아 있다. 유명한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는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다. 개성에는 송악산의 안화사가 1990년에 복원되었고, 만수산의 관음사는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

북한이 사실상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고 엄격하게 분류된 신분위주의 사회임을 감안할 때 불교신도들이 받는 사회적 처우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1966년부터 1967년 3월까지 실시된 주민성분조사사업으로 불교인을 포함한 종교인들은 특수감시를 받아왔다.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이후 종교인들에 대한 제한이 다소 풀렸고 현재는 불교인이 다른 인민들과 전혀 차이 없이 대우받는다고 한다.⁵⁵⁾ 하지만 체제의 속성상 자유로운 불교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신도의 대부분이 당원이고 당국으로부터 사찰에 다니도록 허락 받은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설법의 내용도 주체사상과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불경을 사찰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반동적인 종교인으로 몰릴 것을 꺼려해서 개인적인 사찰방문을 삼가고 있다.

나. 신앙형태와 내용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인민들의 문화휴식처

55) 신법타, 위의 책, p. 79.

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사찰이 복원됨에 따라 그 활동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종파는 조계종이지만 승려가 머리를 기르고 절에 상주하지 않는 대처승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찰은 현재 종교적 의미와 기능은 상실한 채 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즉 불가의 3대기념일인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에 예불을 집전하고 법회도 열리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신자들에 의한 신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승려는 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대선사, 선사, 대덕, 중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불교학원에서 양성된다고 한다.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속성상 북한 정권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신앙활동의 자유를 제약해왔다. 정권 수립 초기에 강력한 탄압을 통해 불교활동을 말살시켰던 북한은 80년대 들어서면서 다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순수하게 종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설립 당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동조하기 위한 협력단체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조불련의 창립강령에도 잘 드러난다. 특히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에 수정된 조불련의 강령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강령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강을 받들고, 이것을 철저히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며, 조국의 국토안정과 완전 자주독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일체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 및 교단 반역자들과 과감히 싸우며, 일본제국주의의 사상잔재와 봉건유습을 철저히 숙청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국의 국토를 방위하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군대에 대하여 적극 원조한다” 등의 체제수호적 목적을

뚜렷이 명시하였다.⁵⁶⁾

조볼련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협력하는 조직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서 불교가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종교에 비해 탄압을 덜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기독교와 천도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것과 달리 불교에 대한 탄압은 이들에 비해 훨씬 덜 했다. 사찰의 토지와 재산이 몰수되고 성직자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 이상의 가혹한 탄압은 없었던 것이다. 불교에 대한 북한 정권의 다소 유화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1946년 7월 22일 ‘북조선불교도연맹’과 ‘북조선불교연합회’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산하단체로 가입했다. 이듬해 5월 13일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8년 3월 25일에는 ‘북조선불교연합회’가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사회단체에 고함”이란 성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의 종교단체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 1966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전쟁 중에 파괴된 사찰과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주요 사찰에는 전문관리인 자격으로 승려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 1967년 3월까지 실시된 주민재등록을 위한 주민성분조사사업의 결과 전체 51계층 가운데 불교인이 38번째로 분류되었다.⁵⁷⁾ 이는 중소상공인, 월남자의 가족, 6·25 당시 남한군에 협조한 자, 숙청자, 인텔리 및 지주자본가 등이 포함된 적대계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1971년 김일성은 북송 재일교포의 창가학회와 기독교 복음활동이

56) 신법타, 위의 책, pp. 156~157.

57) 천도교 32번, 기독교 37번, 천주교 39번, 유학자 40번 등으로 분류하였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가 아닌 순수한 종교로서 당과 조국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종교는 혁명의 일정한 단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1972년 8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는 5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북한의 종교가 최초로 활동을 재개하는 의미를 갖는다. 같은 해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제54조에서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문화했다.

1980년대는 북한 불교가 대외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10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⁸⁾ 1982년 8월 조선불교도연맹이 몽고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참가해서 한국문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1983년 4월 2일 조선불교도연맹 제8차 회의에서 ‘남조선과 해외불교도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고 불교의 교리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회과학원출판사가 북한의 유물과 유적을 집대성한 “우리 나라 역사 유적”이란 책을 발간했다. 1986년에는 8월과 9월에 각각 소련불교대표와 중국불교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했는데 이는 북한의 종교단체가 최초로 외국의 종교단체를 초청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이 네팔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불교도회의(WFB)’에 참석해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⁵⁹⁾ 1988년 5

58) 김일성 주석이 북한의 불교활동 재개에 관심을 보인 계기의 하나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의 권고였다는 설이 있다. 불교신자인 시아누크가 북한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묘향산 보현사를 자주 참배했는데, 시아누크는 김주석에게 절에 불상과 승려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복원할 것을 자주 얘기했다고 한다. LA 관음사 도안스님, 2002.8.22.

59) 북한불교의 해외친선교류 주요 대상은 태국, 몽고, 일본, 캄보디아, 네팔 및 인도 등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아시아종교평화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가탄신일 기념법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북한 종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공식행사이고 북한의 불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대규모 불교행사로 기록된다. 이후 북한은 해마다 석가탄신일, 열반일, 성도일 등 중요한 불교 기념일에 기념법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1984년에 착공된 묘향산 팔만대장경보관소가 1988년 완공되었으며 이곳에는 고려대장경 영인본 전질과 조선조 인쇄목판본 3천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1989년 6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 평화회의 집행이사회’에 참가했다. 7월에는 홍기문이 소장으로서 있는 북한 사회과학원 부설 민족고전연구소가 “고려팔만대장경 해제본” 전25권을 발간했다.⁶⁰⁾ 1990년대부터는 북한 불교가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남한과 해외의 한국불교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평양시 모란봉에 있는 용화사에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청사를 신축하고 광법사, 안국사, 정릉사 등을 복원하기도 했다. 1998년 11월 4일에는 평양 광법사에서 고 윤이상 선생의 천도제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봉행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전통불교의식을 재현한 북한 최초의 천도제였다.

북한의 승려는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대처승이 대부분이며 수행을 목적으로 독신생활을 하는 스님은 없다. 독신의 경우는 이혼이나 부인과 사별한 경우이다. 평상시에는 양복에 구두나 운동화를 착용하고 예식 때는 검은 예복을 입고 그 위에 붉은 장삼을 걸친다. 북한의 승려들은 음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북한의 승려들은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데, 평양 용화사 주지의 경우는

60) 홍기문은 임격정의 저자인 벽초 홍명희의 장남으로 1948년 7월 월북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와 정무원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지난 92년 사망했다.

150원 정도(2002.7.1 임금인상 이전)를 받는다고 한다. 승려들은 아침 예불과 사원 청소를 하고 신도들과의 대화시간도 가지며 경우에 따라 신도가정을 방문하기도 한다. 신도들이 요구하면 절에서 불공도 들여주고 일부 신도들의 집에는 불상도 봉안되어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의 박태화 위원장은 북한불교의 종단 성격이 조계종이며 소의경전도 남한과 같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라고 했다고 한다.⁶¹⁾ 하지만 조계종은 승려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불교의 성격은 오히려 한국에서 승려의 결혼이 허용되는 태고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스님들은 주로 해방 이전부터 승려 생활을 해 온 60~70대 노스님들이 대부분이며 한국과 달리 비구니 스님은 없다.

법회는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1988년부터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에 사찰 별로 법회가 이뤄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국통일기원 법회와 같은 정치성 있는 법회가 개최된다. 1994년부터 4월 초파일 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칭하고 ‘찬불가’도 부르는 등 일부 남한 불교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⁶²⁾ 평양방송 등 언론매체들도 법회의 개최사실과 법문의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일반 인민들도 불교활동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3. 천주교

가. 조직현황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중앙 기구만 있을 뿐 하부조직이 없는 것이

61)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신법타 스님, 2002.6.26.

62)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 142, 각주 16.

특징이다. 또한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1988년 6월 30일 조선천주교인협회(1999.9 조선카톨릭협회로 명칭 변경)가 결성되어 대외적으로 북한 천주교를 대표한다. 장재언 위원장(기존에 장재철이라고 했음)은 조선적십자사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하다. 부위원장은 최선남, 서기장 강지영, 상임위원 한이철·김유철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교황청은 북한지역에 교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카톨릭교협회를 천주교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1988년 10월에 평양 장충성당이 세워져 신자들이 주일마다 공소 예배를 갖고 외국에서 신부가 방문할 경우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장충성당 건립은 지난 1987년 10월 북한에 조선천주교인협회가 발기모임을 가지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 봄 장충성당 공사가 시작됐고 1988년 9월 말 분단 이후 북한 최초의 성당이 들어서게 됐다. 북한 당국은 공사가 한창인 1988년 6월 30일 평양 방송을 통해 조선천주교인협회의 공식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장충성당을 간접적으로 공인했다. 성당을 건축하는데 당시 북한돈 3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가운데 20만원은 신자들의 모금으로, 나머지 10만원은 정부보조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장충성당은 대지 1천3백61평에 건평 1백51평으로 작은 규모이다. 장충성당의 제대 위에는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그린 성화가 붙어 있고, 전면 왼쪽 벽에는 성모 마리아, 오른쪽 벽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요셉상이 걸려 있다. 또 앞쪽에는 지난 1998년 4월 미국 오렌지한인성당 박창득 주임신부가 전달한 최봉자 수녀

의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다. 장충성당에서는 매주 100~200여 명의 신도가 모여 약식 미사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충성당은 초대 회장인 박경수 바오로가 1990년 여름에 병사한 후 차성근 올리오가 회장을 맡아 공소예절 진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장충성당에서 첫 미사가 봉헌된 것은 1988년 10월 30일이다. 당시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 신부였던 장익주교(춘천교구장)와 로마 유학중인 가톨릭대 정의철신부가 30일 저녁미사와 11월 1일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당시 장익신부가 처음으로 첫 미사를 봉헌하면서 바티칸에서 가져온 성작을 기증하여 보관되어 있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신부들은 이 성작을 사용하고 있다. 그 뒤 많은 사제들이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했지만 대부분 미주지역의 한인신부들이 집전한 것이었다. 한국인 신부로는 문규현신부가 1989년 임수경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을때 동행해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으나 보안범위반으로 귀국 후 구속되었다. 한국인 주교로는 1998년 5월 17일 서울대교구 최창무 주교가 오태순·이기현 신부 등과 함께 분단 후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북한의 천주교인 숫자를 80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런데 1991년 4월 김현욱 의원이 IPU 평양총회 참석 시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하여 확인한 숫자는 1,258명 정도에 이르렀다. 1995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 해외천주교인 세미나에서 북한측 대표는 북한의 천주교 신자가 3,003명이라고 하였다. 이후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의 천주교 신자 수를 대략 3천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방 당시 천주교인은 대략 55,000명 내외였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당국의 본격적인 탄압으로 절반 이상의 신자들이 남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 지역에 남은 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종교선전 기간 동안 신앙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천주교 신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3천 명 정도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신앙형태와 내용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는 1991년에 교리서와 가톨릭 기도서를 발간하였다. 천주교 교리서는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를 알자」 교리서는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 등 3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발간된 교리서를 발췌하여 구성되었다. 「신앙생활의 걸음」은 교계제도의 특성과 소개, 성경 및 전례주기에 대한 설명 등 천주교에 관한 상식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가톨릭기도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내용과 동일하며, 표기법만 북한식 표기법으로 고쳐진 것이다.

북한의 천주교회를 방문한 여러 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의 천주교회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 섬김, 주체사상과 천주교 교리를 조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어 국가교회의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조선카톨릭협회는 과거 천주교 신자 가정을 대상으로 잠재적 신자를 파악하여 전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카톨릭협회가 북한 천주교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교회의 발전과 권익옹호, 신자 공동체의 유대강화, 세계 카톨릭교회와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북한의 대외 선전용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활동의 공개화와 교황청에 대한 개방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천주교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데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이 북한천주교를 대외적으로 내놓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황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황청과 대화의 창구는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이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교황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천도교

가. 조직현황

민족종교로 간주되고 있는 천도교는 북한에서 6.25 이후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천도교청우당’이 노동당의 우당으로 활동함에 따라 조선천도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서가 대남공세 차원에서 발표됨으로써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종교본연의 활동은 아니었다. 종교본연의 활동은 1986년 천도교 창도 기념일인 ‘천일절’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재개되었으며, 이 기념의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단군능에서 단군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이른바 민족종교로 부각되어 다른 종교에 비해 그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북한 주민에게 종교본연의 활동보다는 정당단체로서의 활동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라 한다.

해방당시 민족종교로서 약 2백86만여명의 신도수를 가졌던 북한 천도교는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북한당국의 반종교정책에 의해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제한→탄압→말살의 단계적 조치를 당했다. 북한에서는 천도교를 우리 나라 고유의 동학이 개편된 종교로서

신비주의적인 면이 강화되고 반침략·애국사상이 상실된 신앙(1983년판 백과전서)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외곽조직으로 전락되어 1946년 2월 8일 창당된 ‘천도교청우당’이 북한정권과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북한종교단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천도교는 1989년 5월 30일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천도교단체로는 1946년 설립된 ‘천도교 북조선정무원’이 1949년까지 활동하다가 잠적했고,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종교의 자유 위장선전과 대남통일선전 형성 필요성에 의거 1974년 2월 15일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해방당시 천도교는 신도 2백80여만 명을 가진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이었으며 초기 북한 집권세력과도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6.25 이후 70년대 초까지 천도교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1974년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다가 1986년 4월 5일에 천도교 창도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것을 시발로 해마다 4월 5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 천도교는 노동당의 선전기구로 완전히 전락하여, 1986년 천도교 창도 126주 기념행사 이후 매년 반복된 행사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천도교 이념이 구현된 지상천국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일성 부자세습체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 천도교는 대남 비난선전과 한국 천도교인사 밀입북 공작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86년에는 한국 천도교 중앙본부 교령을 지낸 최덕신을 포섭, 월북시켜 89년 3월 청우당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및 주한 미군철수 주장, 한국의 북방정책 모략 및 비방 등 한국내 반한·반미 선동에 북한 청우당을 적극 이용해 왔다. 또한 1997년 월

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도 최덕신과 동일하게 천도교의 대남사업 도구화에 이용되고 있다.

천도교는 북한의 사회 체제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종교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구성된 장의위원회 273명의 명단 중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인 유리명이 39위로 되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천도교 청우당원의 수가 22명이나 되고, 지방의회에도 300여명의 대의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한 조선종교인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도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이다.

1993년 12월에 개정된 천도교청우당 강령·규약에 보면 당원은 만 18세 이상의 천도교인들과 각계 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으로 구성된다.⁶³⁾ 입당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해당 집에 제출하고, 시(구역)·군 당위원회는 접총회를 통해 1개월 안에 심의 처리한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직할시), 시(구역)·군 당조직의 최고지도 기관은 도(직할시)·시(구역)·군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당대회는 4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조직으로 도(직할시) 당대표회는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3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평양에 중앙지도위원회가 있고 시·도별로 지방조직이 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지방조직의 활동상황이 보고 된 적은 없다. 당의 기층조직은 접이다. 접의 지도기관은 접총회이다. 접은 수시로 접총회를 소집하고 상

63) 「조선 천도교청우당 강령·규약」(강령 및 7장43조), 「연합뉴스」, 2001. 10.13.

급 당조직의 결정, 지시, 집행대책을 토의한다. 당의 재정은 당원 월 수입의 1%로 충당한다. 현재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최덕신의 처인 류미영이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여봉구, 강철웅, 김철민, 최희준, 한영수, 한영욱 등이 활동하고 있다.

나. 신앙형태와 내용

천도교청우당은 강령에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하고, 갑오농민전쟁, 3.1운동,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反日)성전에서 이룩한 선열들의 애국애족과 민족단합의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척양, 척왜 등 9개항을 기본과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당 규약은 조직의 원칙과 구조와 관련, “중앙에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에 도(직할시)당위원회, 시(구역)·군에 시(구역)·군 당위원회를 두며, 당 최고기관으로 당대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1993년 12월 이같은 내용의 천도교청우당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제반봉건 투쟁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천도교는 2002년 12월 현재 1만 3천 5백여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다. 예배 형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 혹은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당은 현재 800개소의 전교실이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 직접 방문한 기록은 없어 그 실태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평양에 100석 규모의 중앙 교당이 있으며, 지난 1986년부터 천도교 기념일의 하나인 천일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V. 향후 북한 종교지형의 변화 전망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는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 발생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실시 등으로 탈냉전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보였다. 북한의 종교는 개인 혹은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처소예배를 기본적인 예배 형태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보편적 적대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전통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특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처소와 개인 중심의 신앙 형태 때문에 그 원형이 보전되고 있는 까닭이다. 또한 전도와 경전 소지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도는 자신이 종교인임을 밝혀야 하는 부담과,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북한 주민들의 종교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상 투쟁의 영향으로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무용론, 그리고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허무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 안에서 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전도의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상황과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종교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 혹은 집단의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종교는 교류를 통해 접하게 되는 외부의 종교 양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도교와 개신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치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향후 북한 종교지형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평양에 봉수교회와 창충성당이 들어선 1988년, 그리

고 불교의 성도절(成道節) 기념법회를 전국사찰에서 가진 1989년 이후 종교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찾아올 국제손님들에게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을 과시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측면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로부터 연유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관계 개선 필요성과 같은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사회의 전반적 변화의 속도와 범위, 수준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상봉,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발효(2002.9.17) 등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2002년 9월 이후 이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 및 응원단이 대거 참가하여 남북관계의 분위기는 매우 고조되었다. 여기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통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어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마도 머지 않은 장래에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더불어 2002년 7월 1일 북한정부는 물가조정, 임금인상, 개별기업소에 대한 계획, 생산, 판매의 자율화를 단행하였다. 일상생활용품을 비롯한 국정가격 전반을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실재가격으로 20~40배 인상하였으며 국가가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하였다. 이와 함께 임금을 기존의 200원에서 2,000~3,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2002년 9월 19일에는 신의주 행정특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무비자’로 신의주 지역 방문을 허용할 준비를 갖추는 등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본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면 북한사회는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시장형성과 자본주의적 교환관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배급을 받는 무상배급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임금노동의 제도로 변화될 것이다. 주민들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누진노급제’를 강화할 것이며, 농업부문에서도 집단농장제에서 개인영농제로 전면개편될 것이다.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북한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북한사회에 체제전환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회주의 복지제도에 익숙한 북한사람들 가운데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경제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을 보더라도 체제 변혁기에 겪게되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변화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주민들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변화들이 국가통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탄압국’이라는 누명을 벗고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개방은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종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제도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이 가속화되고 제도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연합’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정상회의, 각료회의, 실무회의, 남북의회 등을 축으로 하는 중앙연합기구의 통제력이 점점 강해져 외교권과 국방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통제하는 시기가 되면 정치적 통일은 아니지만 태풍의 눈과 같은 남북간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일단 통일의 실질적이며 안정된 기반을 갖춘 셈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제도의 일원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종교적 지형은 확대될 것이며 약간의 종교적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향후 북한의 종교지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교유형의 파악이 필요한데, 이는 종교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종교단체와 국가와의 상호관계에서 종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가 한 사회의 종교지형을 특징 짓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세계종교사를 통해 볼 때 종교는 정권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종교사를 통해서 볼 때, 종교는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① 국교 체제 → ② 준국교형 공인종교 → ③ 통제형 공인종교 → ④ 다종교로 진행되어 왔다.⁶⁴⁾ 이 역사적 진행은 종교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보된 과정을 보여준다.

국교체제란 하나의 종교가 국가권력의 신성화를 보장하는 형태의 종교를 지칭한다. 종교는 통치이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신성화를 보장하고, 통치권은 국교의 권위를 확고하게 지켜준다. 이처럼

64) 윤이흠, “북한의 개혁개방과 종교정책의 전망,” 민주평통 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 제45차 회의자료(2001.3.19), pp. 3~7.

국교는 신성정권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정권은 자신의 안정과 국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교 이외의 타종교를 탄압하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국교제도는 종교와 정치권이 사실상 하나의 통치세력으로 결합하는 결과에 이른다. 서양의 중세 기독교 사회와 현재의 이슬람 사회가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공인종교는 국교체제와 다종교사회의 중간 형태로 여러 종교 가운데 특정한 하나 또는 몇 개의 종교로 하여금 정권의 신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종교제도는 상대적으로 기타 비공인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준국교형 공인종교는 정권의 신성화를 위해 공인된 종교로 영국의 성공회와 대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공인종교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공회는 영국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한 주체였으며, 지금도 영국 국체의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다종교사회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로 잘 알려져 있다. 대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은 불교, 신도교,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종교로 인정하고, 타종교는 “공인종교에 유사한 종교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종교라 이름하였다. 유사종교가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잡음을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공인했으며, 일본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불교를 공인하였고, 일본 천황의 신성성을 현양하기 위하여 신도교를 공인하였다. 이처럼 준국교형 공인종교는 결국 자국의 통치체계의 신성성과 안정의 보장을 위하여 특종종교를 공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인종교제도의 운영 정도에 따라, 국교의 성격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성숙한 다종교상황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통제형 공인종교는 반종교적 이념을 지닌 정권이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공인하는 경우로 그 전형적인 예가 공산사회이다. 공산주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를 ‘아편’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아편과 같은 강력한 최면력을 가진 종교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의 혁명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공산사회에서도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기왕에 존재하는 종교단체들에 한하여 공산체제의 발전에 최소한도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발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의 활동을 인정해준다. 그 전형적인 형태를 중국의 ‘삼자교회’(삼자운동은 자립, 자양, 자전)에서 볼 수 있다. 구소련체제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동방정교회를 위시한 여러 종교들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는 주어진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교를 동원하거나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특정한 종교를 공인하는 형태이다. 통제형 공인종교는, 말하자면 종교도 세속적 정치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이데올로기는 절대신념체제가 되고, 정권은 유사종교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공산주의는 국교의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며 다종교로 발전한다. 다종교 상황이야말로 현대 민주사회의 특징적 얼굴이며 목표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정권은 모든 종교의 자율성(3차원의)을 보장하는 것이 그 사회적 수임이다. 한마디로 정권은 다종교사회의 질서유지 임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통치권이 질서유지의 수임을 넘어, 종교적 이상이나 신념내용, 그리고 실천체계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권은 전체주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다종교사회는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는 ① 신앙의 자유와 ② 행위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엄정하게 보장하는 이상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종교의 교리내용에 대한 이유로 그 종교를 박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회적 수순을 밟게 된다. 우선 어느 특정한 교리의 비합리성을 들어 그 종교를 거부한다면, 모든 종교가 거부되어야 하는 사태에 이른다. 어떤 종교도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의 맥락 밖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정책은 그 자체가 전체주의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는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이러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통제형 공인종교로부터 다종교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종교상황으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각 교파의 조직과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다종교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전통종교가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상당한 규모의 신자층 기반으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바뀌고 사회주의 이념적 성향이 다소 약화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이 종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단번에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종교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처음에는 북한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용인할 것이며, 종교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종교활동의 허용은 세속가치를 넘어선 절대신념체계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상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개혁

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의 종교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종교지형은 지금보다는 훨씬 확대될 것이다.

VI. 맺음말

세계적인 탈사회주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은 최근 10년간 종교활동의 공간확대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말에 전향적으로 변화된 종교정책에 힘입어 북한의 각 종단은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연맹활동으로 각자의 종교영역을 확장시켰다. 한국전쟁 이후 반제의 사회적 분위기와 조직적인 반종교선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1세대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2세대, 3세대 신앙인의 남은 뿌리들이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신앙활동은 북한당국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참여와 국가적·민족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서방세계나 남한 종교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허용된 공간 속에서 개인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종교는 국가적으로 혹은 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사회 내부에 사적 종교활동의 영역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오가는 탈북자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식량난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 종교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사적 종교활동이 북한당국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파악하는 느슨한 조직망에 속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적 종교활동의 영역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각 종단별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종교지형의 전반적 변화는 한국전쟁 이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의 남은 그루터기들이 북한체제의 대내외적 필요

에 의해 동원, 조직화된 데 기인하고 있다. 탈냉전의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와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종교계의 활용이 대미관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 식량난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내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된 신앙인의 2세대, 3세대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상당한 작용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 시기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영역에서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고, 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2003년 출범할 신정권에서도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한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나진·선봉 경제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특구, 신의주 행정특구 등 개방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대외, 대남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다원화된 남한사회의 특성을 이용하여 남한의 여러 종교단체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남한의 각 종단들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활용하여 북한의 종교기관과 접촉채널을 확보하고 장기적 포교를 염두에 둔 종교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로부터 인권문제와 관련한 종교의 자유 허용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다. 1998년 결성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평화협정 체결시 종교의 자유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할 것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의 의미가 강한 바, 북한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이며, 북한의 종교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참 고 문 헌

-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강인철. “월남 개신교, 천주교의 뿌리: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비평』 제 17호, 1992년 여름.
- 국제정보연구원 편. 「북한정보총람 2000」. 서울: 국제정보연구원, 1994.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남북대화시대의 종교계 통일운동 방향」. 서울: 국토 통일원, 1989.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 _____. 「북녘의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서울: 은석논장, 1989.
- _____. 「북한의 종교」. 서울: 통일연수원, 1992.
- 기독교학문연구회 엮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 생회출판부(IVP), 1994.
-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김영한.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90.
- 김영훈. 「통일부작용」. 서울: (주)할렐루야서원, 1992.
- 김중석. 「북한교회 재건론」. 서울: 도서출판 진리와 자유, 1998.
- _____.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 서울: 반석문화사, 1993.
-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연구·증언·자료」. 서울: 다산글 방, 1992.
- 김홍수 외.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21세기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0.
-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한울, 1995.
-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_____.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교회의 위기와 전망』.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서울: 공보처, 1994.
- _____.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종교교류를 중심으로』.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4.
- _____.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현황,”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34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의 종교와 통일을 위한 종교계 협력과제』, 1998년 10월.
- _____. “특집: 남북한 문화교류 이것이 문제다-종교편”, 『월간 북한』, 1993년 10월호. 북한연구소.
- 문화분과위원회(제44차 세계성체대회).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 서울: 일선기획, 1990.
- 문화체육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부, 1997.
- _____. 『北韓地域 宗教資料集』. 서울: 문화체육부, 1994.
-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Pasadena, CA: 아시아선교연구소(IAM), 1999.
- 박순경. 『민족통일과 기독교』. 서울: 한길사, 1987.
- 박영호. 『교회와 공산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박용곤·김화효. 『주체사상입문』. 동경: 구월서방, 1989.
- 박완. 『한국기독교 100년』 제1~6권. 서울: 선문출판사, 1971.
- 박완신. 『통일의 그날: 북한의 종교와 대북한 선교전략』.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89.
- _____. 『평양에서 본 북한사회』. 서울: 도서출판답게, 2001.
- 백종국.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3.
-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 1998.
- 북미주기독교학자회.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서울: 자료원, 1995.
-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서울: 민족사, 2000.
- 안부섭 엮음. 『남북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울: 진리와자유, 2000.
- 양한모.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서울: 일선기획, 1990.
- 오대원.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울: 예수전도단, 1999.
- 윤동현. 『북한의 종교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윤이흠. 『종교가 북한 사회에 끼치는 영향』. 통일원, 1990.
- _____. “북한 종교와 종교 생활,”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_____. 『한국종교연구 1-3』. 서울: 집문당, 1986
- 윤이흠 외 공저. 『한국인의 종교』. 서울: 정음사, 1987.
- 윤재근·이상호·박상천 공저. 『북한의 문화정보, I, II』. 서울: 고려원, 1991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_____. 편저.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출판사, 1989.
- 이호삼. 『통일신학과 그 성서이해 “Not Only, But Also”』.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0.
- 임성빈 엮음.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 鄭逢恩 著, 國土統一院 編. 『南北韓宗敎人接觸對話方案』. 서울: 국토 통일원, 1973·5
- 정태혁. 『북한의 종교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1.
-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9.
-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주체의 신’에서 해방되어 인간을 되찾기까지』. 서울: 고시계, 1990.
- 조동진.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평화통일과 북한선교(I)』. 서울: 서부연회출판부, 1998, pp. 143~166.
- 최영호. “김일성 생애 초기의 기독교적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호, pp. 69~78.
-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한국인의 마음을 빛은 巫·儒·佛·道』. 서울: 한울, 1995.
- 통일신학동지회 엮음. 『통일과 민족교회의 신학』. 서울: 한울, 1990.
- 통일원. 『남북종교교류 관련 자료집』. 서울: 통일원, 1995. 9.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간 민간부문 접촉·대화문제』. 서울: 통일원, 1995.
- 평화와통일신학연구소 편. 『평화와 통일신학 1』.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북한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운동』.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91.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1945년 이후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서울:民族文化社, 1980.
- _____ 편. 『한국종교연감』.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 현대사회연구소 편. 『북한종교연구 1, 2』. 경기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1, 1992.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북한선교위원회. 『한국천주교 통일사목 자료집 1945~1991』. 서울: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2.
- 한국천주교통일사목연구소 편.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 서울: 일선기획, 1990.
-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서울: IVP, 2000.
- 홍동근. 『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서울: 형성사, 1994.
- 황현조. 『성육신적 북한선교』. 서울: 도서출판영문, 1998.
- 윌리엄 뉴튼 블레어. 김승태 옮김.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노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줄리아 칭. 임찬순·최효선 옮김. 『유교와 기독교』. 서울: 서광사, 1993.
- J. M. 로크만 지음. 제3세계신학연구소번역실 엮음. 『사회주의와 기독교: 체코교회의 경험』. 서울: 나눔사, 1999.
- Kirk, J. Andrew. *What is Mission?: Theological Explor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 Lingenfelter, Sherwood. *Transforming Culture: A Challenge for Christian Mission*. Second Edi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